

●●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 가족참여형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부모의 밤(Parent’s Night)’ 사업

‘학부모의 밤’ 사업 보고와 평가토론회 자료집

프로그램

오후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씀

2:30~3:00 경과보고 및 사례발표

3:30~3:40 휴식

3:40~4:30 토론

4:30~5:00 종합토론

사회

이광호(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인사말씀

발표자

1. 사업 경과 보고 - 김혜영(함께여는교육연구소)
2. 사례1. 용화여고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 윤지희(용화여고 학부모 운영위원)
3. 사례2. 저소득 가정 지원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 오일화(1318해피존모람아지트)
4. 사례3. “학부모의 밤” 사업 평가와 향후 전망
- 이세용(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토론자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박난숙(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장)

손우정(국회 교육위원회 임해규 의원실)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차례

I. 학부모의 밤 사업 소개

1. '가족참여형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부모의 밤' 사업이란? | 9
2. 2006년 사업추진 경과보고 | 11
3. 2007년 사업추진 경과보고 | 15

II. 학부모의 밤 사례보고

1. 단위학교별 학부모의 밤 | 17
 - 1) 용화여자고등학교 | 17
 - 2) 백암중학교 | 27
 - 3) 동천초등학교 | 41
 - 4) 이우중고등학교 | 46
2. 성남지역 저소득 가정 지원 학부모의 밤 | 49

Ⅲ. 발표자 원고

1. 용화여고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윤지희_용화여고 학부모 운영위원) | 57
2. 저소득 가정 지원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오일화_1318해피존모람아지트) | 78
3. “학부모의 밤” 사업 평가와 향후 전망 (이세용_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 91

Ⅳ. 토론자 원고

1. 학부모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모델 ‘학부모저녁모임’
(강윤봉_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 108

-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 가족참여형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부모의 밤(Parent’s Night)’ 사업



‘학부모의 밤’ 사업 보고와 평가토론회 자료집

I. ‘학부모의 밤’ 사업소개

1. ‘가족참여형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부모의 밤’ 사업이란?

1) 학부모의 밤 사업이란?

▶ 저녁 시간에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가능한 프로그램

학부모의 밤 사업은 학부모가 저녁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자녀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사와 만나서 대화하고, 동료 학부모들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다양한 가족유형의 등장을 반영하는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모델

낮에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야 가능한 전통적인 학교참여모델은 맞벌이부부의 증대 및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의 밤 사업은 낮시간에 학교를 방문할 수 없는 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학부모 협력모델로 제시되었다.

▶ 아버지의 자녀교육참여와 학교참여 촉진

기존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참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중심으로 볼 때 전업주부의 참여를 근간으로 조직되어 왔다. 이것은 자녀양육과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남녀역할 분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학부모의 밤 사업은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와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를 촉진하고자 한다.

▶ 가족-학교-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학부모의 밤 사업은 학교와 가정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여러 가족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학부모의 밤' 사업 운영모델

▶ 학급 모임과 담임과의 대화의 시간

학부모들은 누구나 교사와의 솔직하고 친밀한 대화를 원한다. 누구나 이런 만남을 원하지만 교사를 만나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교사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고 있으며 교사들도 개별적인 부모들과의 만남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저녁시간에 학급별 모임을 갖는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런 만남을 통해 부모와 교사 모두 학생의 성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 학기에 1회 정도만 저녁시간의 학급모임이 열린다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학교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용화여고와 백암중학교에서의 학부모의 밤은 학급모임과 담임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 부모교육과 연수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 부모 자신의 자기 계발 등을 위한 교육활동과 연수가 학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 스스로 기획할 수도 있으며, 학교와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강사로 참여할 수도 있다.

[2006년 동천초등학교, 백암중학교, 용화여고에서 5-6회의 학부모 아카데미가 실시되었고, 2007년 동천초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부모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 학부모 문화행사 혹은 학부모 캠프

학부모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자녀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학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2007년 이우중고등학교 학부모 캠프와 성남지역 저소득 가정지원 학부모 캠프를 실시하였다. 2007년 용화여고와 백암중학교의 학부모의 밤 행사도 학부모 교류를 중시하였다. 즐거우면서도 진지한 나눔의 경험을 통해 학부모들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신뢰를 쌓고, 학교와의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 저녁시간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학부모 총회를 갖고 학교, 학년, 학급의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부모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학부모 총회를 저녁시간으로 옮긴다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남한산초등학교, 이우중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학부모 총회를 대다수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한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 개별 학교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학부모 저녁 모임

부모와 동네 어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별빛 운동회, 학생 축제에 학부모를 초대하는 저녁시간의 학부모를 위한 문화활동,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 저녁 시간의 학교 음악회, 주말을 이용한 학교에서의 1박 2일 체험행사 등등.. 여러 지역의 여러 학교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와 학생의 성장에 대해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 교사, 학부모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학부모의 밤 사업의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기획되고 실천될 수 있다.

2. 2006년 사업추진 경과보고

1) 사업 배경

본 사업은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학교-가정-지역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형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교운영의 모델에 대한 연구와 지역과 학교의 관계 및 올바른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주요한 사업과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소는 학교와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학부모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학교 공동체에서는 교육과 학교운영의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동안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과 운영의 주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부모에게 학교의 문턱은 높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은 학교에서의 중요한 문제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부모에게 문턱을 낮출 것인가, 지역과 학교의 소통과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학부모의 밤의 가능성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2) 사업 진행방법

▶ 연구 기획팀의 구성

학부모(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부 신동희), 교사(인현고등학교 교사 한승수, 이우고등학교 교사 유봉인), 연구자(이세용, 김혜장, 이회경)과 연구소의 실무자로 연구기획팀을 구성하였다. 이 팀에서는 학부모 활동에 대한 국내사례 조사와 연구, 외국사례와 이론연구 및 학부모의 밤 사업의 의의에 대한 연구 조사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연구 기획팀의 활동결과는 2006년도의 연구활동자료집, 국내외 사례연구(1), 제1차 워크숍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다.

▶ 학부모의 밤 사업을 진행할 학교선정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각 최소 한 학교 이상을 선정하고자 했는데 이는 학교급별과 지역에 따라 학부모들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선정은 학부모 운영위원을 통해 먼저 제안하였고, 교장선생님의 결심으로 순조롭게 결정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세 곳을 접촉하여 한 곳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 단위학교별 학부모의 밤 준비위원회 구성

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가 포함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급식체험과 학급별 대화

사업제안단계부터 학부모 운영위원의 참여가 있었던 두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동의 하에 학부모의 밤 준비위원회를 순조롭게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초등학교의 경우는 준비위원회 구성에 실패하였다.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밤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이미 어머니회와 같은 조직을 해체하였으므로 새로운 활동조직을 만드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학교의 소극성이 함께 작용하였다. 또한 교사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의 어려움도 있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의 경우 이후 학부모의 밤 사업은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하였고 연구소는 이 논의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제반실무를 지원하였다.

▶ **학부모의 밤 사업의 홍보와 학부모 상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교 선정 후 학부모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동일한 설문을 세 학교에 전수조사하였고, 60% 이상 회수되었으며 이 설문을 통해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연간 학교방문 횟수, 학교방문 목적, 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설문조사를 기초로 학교급별로 내용을 달리하는 학부모 아카데미 실시**

설문조사의 결과 학교급별로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모교육이 달랐고, 이에 기초하여 단위학교별로 서로 다른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2006년 2학기에 5~6회 실시되었다.(본 자료집의 단위학교별 학부모의 밤 사업보고 참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사업시행 1년차에 우선 실시한 것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들이 저녁시간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과 공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 학부모 아카데미에 교사들도 일부나마 참여하면서 부모들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학부모의 밤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학부모 아카데미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이 평가를 기초로 이듬해의 학부모의 밤 행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3) 2006년 사업진행일정

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활동
1월	협력사업 신청	
2월	협력사업 확정	
3월	사업추진실무팀 구성	연구기획팀 구성
4월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활동	연구계획확정
5월~6월	학교선정 (용화여고, 백암중, 동천초 결정)	1.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역사적 흐름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의 2. 남한산초등학교와 우수학교 사례연구
7월	1. 단위학교 준비팀 구성 2. 학교별 설문조사 실시	1. 학교, 가족, 사회의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의 2. 간디, 풀무, 푸른꿈 사례연구

8월	1. 설문조사 결과분석 2. 워크숍 준비활동	1. 설문조사 결과비교와 분석 2. 학부모-학교 협력관계에 대한 이론 연구와 외국 사례검토 3. 사례연구 자료정리
9월	1. 워크숍 개최 2. 단위학교별 학부모 아카데미준비	1. 연구활동 자료집 제작 2. 사례조사 자료집 제작 3. 워크숍 자료집 제작
10월~11월	학부모 아카데미 실시	학교별 학부모 아카데미 자료집 제작

3. 2007년 사업추진 경과보고

1) 2007년 사업의 특징

▶ 단위학교별 특징에 맞는 학부모의 밤 사업 운영모델 확정

설문조사와 학부모 아카데미의 실시를 통해 각 학교의 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입장과 상황이 파악되면서 2007년 학부모의 밤 사업의 운영모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학교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학부모의 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용화여고와 백암중학교는 준비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급식체험행사와 학급별 모임, 학부모 마음나누기를 기본 모델로 하는 학부모의 밤을 기획할 수 있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동천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2007년 사업에 이우중고등학교 학부모 캠프를 사업모델로 추가하였다. 이우 중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교이다. 여기에서는 학부모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학부모 문화행사로서의 학부모 캠프를 새롭게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 저소득 가족지원을 위한 준비팀의 구성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참여시키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한다는 애초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 가족 지원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였다.

학교와의 협력 사업에서 저소득 가족지원이라는 과제에 맞는 사업모델을 진행하기에는 학교와의 공유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역공부방과 연대해서 학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에 이 사업을 제안하여 공부방 교사들과 준비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팀을 통해서 저소득 학부모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밤 사업모델을 학부모 나들이 형태의 캠프로 모델화 할 수 있었다.

2) 2007년 사업 일정

일정	단위학교 학부모의 밤	저소득 지원 학부모의 밤
2월	용화여고 1차 준비회의를 통해 사업모델 검토 시작	
3월	이우중고등학교 추가 결정	성남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 검토
4월~5월	단위 학교별 학부모의 밤 운영모델 확정	성지연 학부모의 밤 준비팀 구성
6월	학부모의 밤 실시 [용화여고(6월1일), 동천초등학교(6월13/14), 백암중학교(6월22일)]	지역 차원의 학부모의 밤 사업모델로 캠프 형식의 결정 (성지연 학부모 나들이)
7월	이우중고등학교 학부모 캠프실시(7월16일-17일)	학부모 나들이 프로그램 논의
8월		공부방별 학부모 모임과 설문조사 실시
9월		9월 8일 학부모 캠프 실시
10월	보고회 및 평가 토론회	

II. 학부모의 밤 사례보고

1. 단위학교별 학부모의 밤

1) 용화여자고등학교

▶ 사업진행일정

년차	일정	사업내용	비고
2006년	5월	학부모의 밤 사업 학교에 제안	교장선생님과 면담
	6월	사업추진확정	
	7월	준비팀 구성	교사와 학부모로 준비팀 구성
		설문조사	전체 학부모 대상
	8월	설문결과분석	
	9월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정	준비팀에서 논의 후 결정
10월~11월	5회 아카데미 프로그램 실시	연인원 500여명 이상 참가	
2007년	2월	학부모의 밤 추진방향 논의	준비팀에서 논의
	3월~5월	학부모의 밤 추진일정 확인	프로그램 검토
	6월	학부모의 밤 사업 실시(6월1일)	학부모 250여명, 교사 50여명 참여

▶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 수: 1017명 (총 1600명 중 303명, 63.6%)

❖ 어머니의 취업실태

종일근무: 26.6%

시간제 근무: 13.3%

자영업: 18.6%

전업주부: 41.5%

❖ 부모교육 내용 선호도

자녀의 진로진학지도: 75.9%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61.5%

자녀와의 의사소통: 60.1%

청소년 문화의 이해: 40.9%

▶ 2006년 학부모 아카데미 실시

❖ 연인원 500여명 참여

❖ 저녁 7시~9시

일정	강좌명/강사	강사 약력
10월 25일(수)	고3 학부모를 위한 진로지도/ 오종운 선생님	(주)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소장
11월 1일(수)	고1, 2 학부모를 위한 진로지도/ 오종운 선생님	(주)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소장
11월 7일(화)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 송재희 선생님	〈몸이 즐거운 체질 학습법〉 〈모든 10대는 엘리트 가 될 권리가 있다〉 〈대중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상상력을 죽이면 소프트웨어는 없다〉 저자 초암논술 아카데미 대표, 문화예술아카데미 플로 위은 집 이사
11월 22일(수)	자녀와의 의사소통/ 임준희 선생님	노원중학교 교사
11월 29일(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는 학부모 코칭/ 남관희선생님	고려대 정보통신대학 글로벌 리더십 교수, 한국리더십 센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퍼실리테이터, 한국코칭센터 〈자녀성공을 위한 코칭〉 퍼실리테이터

▶ 2007년 학부모의 밤 실시

❖ 6월 1일 오후 5시 30분~9시

❖ 프로그램은 65쪽 참조.



직접 쓴 소지를 거는 부모들

- ❖ 학부모의 밤 운영모델: 1부-저녁급식체험행사, 학급별 만남과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자녀를 생각하며 소지 쓰기과 걸기, 2부-공연과 마음 나누기
- ❖ 학부모 250여명, 교사 50여명 참여

▶ 평가

▷ 긍정적인 점

- 교사 세 분과 학부모 6명이 함께 학부모의 밤을 기획하고 준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학부모의 밤 운영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았다.
- 참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 프로그램이 학교에 대한 신뢰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

- 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 2007년 학부모의 밤은 학부모의 밤 운영모델의 실험적 적용의 의미가 높았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와 교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학부모의 밤 사업이 용화여고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제 2회 학부모 아카데미(2007년 11월)와 학부모의 밤(2008년)이 진행될 예정이다.

▷ 개선되어야 할 점

- 학부모 아카데미의 경우 100여명이 한꺼번에 수강함으로써 강의 일변도의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아쉽다.
- 급식체험 행사 이후 학급 모임에서 주위의 소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편안하고 밀도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성찰하면서도 부모들 상호간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실험적인 프로그램이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학교에서 학부모의 밤을 정례화할 경우에는 학급모임의 성격과 부모들 간의 친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밀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 학부모의 밤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준비위원들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용화여고 학부모의 밤 행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1. 자녀의 학년은? (두 명 이상이 다닐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응답자 117명

1학년: 57명, 2학년:39명, 3학년: 21명

❖ 총 참석자를 250여명으로 추산할 때, 약 50%의 응답률을 보임

2.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① 부모 모두 ② 어머니 ③ 아버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부모모두	7	3	0	10
어머니	50	35	21	106
아버지	0	1	0	1
합계	57	39	21	117

❖ 응답자 중 아버지가 참여한 가구는 11가구로 전체 응답자 가구의 10%임, 아버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홍보방법이 필요함

3. 2,3학년만 응답해 주십시오. 2006년의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가하셨습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그렇다	1	24	11	36
아니다		12	10	22
무응답		3		3
합계	1	39	21	61

❖ 2, 3학년 응답자 중 작년의 아카데미 참석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임, 아카데미 참석자가 학부모의 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4. 급식체험행사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의미있다 ② 의미있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별로 의미없다 ⑤ 전혀 의미없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의미있다	25	12	5	42
의미있는 편이다	26	22	13	61
그저그렇다	2	3	2	7
별로 의미없다	1	2	1	2
전혀 의미없다	0	0	0	0
무응답	3			3
합계	57	39	21	117

❖ 급식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본 응답자가 약 90%임, 그러나 매우 의미있다는 응답자는 1학년이 다수이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듦.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연수에 반비례하는 응답으로 보임.

5. 급식의 질과 양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개선이 필요하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만족	13	3	5	21
만족	31	19	8	51
보통	7	12	8	27
개선필요	2	4	0	6
무응답	4	1	0	5
합계	57	39	21	117

❖ 급식의 질과 양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2%,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23%임. 역시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통이하로 응답하는 응답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평소 자녀로부터 급식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은 학년일수록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맛이 강하다, 짜다, 제철과일 이용바람, 국내산 재료 사용, 반찬부실]

7. 반 단위의 모임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그렇다	13	6	1	20
그렇다	24	19	8	51
보통이다	11	11	7	29
그렇지 않다	4	3	5	12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무응답	5	0	0	5
합계	57	39	21	117

❖ 반모임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0%,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10%임. 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9번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식당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환경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임. 좀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반 모임이 이루어지고 담임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꼭 필요함.

8. 급식 후 담임선생님과 대화는 만족스러웠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한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만족	16	8	7	31
만족	35	21	12	68
그저그렇다	5	7	1	13
별로 만족하지 않음	1	2	1	4
전혀 만족하지 않음	0	0	0	0
무응답	0	1	0	1
합계	57	39	21	117

❖ 프로그램 중에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소지쓰기와 결기 및 부모들과의 친교활동의 성격을 가진 마음 나누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과 학부모들이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11. 학부모의 밤 행사가 학교-학부모의 신뢰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그렇다	42	29	12	83
아니다	1	1	0	2
잘모르겠다	12	8	8	28
무응답	2	1	1	4
합계	57	39	21	117

❖ 70% 이상의 응답자가 학부모의 밤 행사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개방형 질문인 14번에 답하면서 학교의 준비와 노력에 감사하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이 공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높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12. (1, 2학년 학부모님만)내년에도 학부모의 밤 행사가 열리면 참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그렇다	46	33	2	81
아니다	2	2	0	4
잘모르겠다	8	4	2	14
무응답	1	0		1
합계	57	39	2	98

❖ 3학년 응답자는 저학년에 자녀가 있는 경우임

❖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학부모의 밤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 학부모의 밤 행사에 개선해야 할 점이나 포함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졸업생, 선배 초빙 간담회, 초빙강사 강연
- 참가한 학부모들이 즉흥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14. 학부모의 밤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간단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들과 매우 가까워졌다.
- 즐겁고 뜻있는 밤이었다.
- 같은 반의 부모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어서 매우 의미있었다.
- 맞벌이 부모가 자연스럽게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 소지쓰기와 걸기 행사는 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더 사랑과 정이 솟는 듯했다.
- 선생님과 여러 학부모와 격의없는 대화와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학교와의 큰 벽을 헐어낸 것 같다.
-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
- 삼위일체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자연스러운 학교방문의 기회가 되었다.
-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 백암중학교

▶ 사업진행일정

년차	일정	사업내용	비고
2006년	5월	학부모의 밤 사업 학교에 제안	교장선생님과 면담
	6월	사업추진확정	
	7월	준비팀 구성	교사와 학부모로 준비팀 구성
		설문조사	전체 학부모 대상(200명)
		학부모의 밤 창단식	창단기념으로 1회 강좌 우선실시
	8월	설문결과분석	
9월~11월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정	준비팀에서 논의 후 결정	
	9월~11월	5회 아카데미 프로그램 실시	연인원 200여명 이상 참가
2007년	2월	학부모의 밤 추진방향 논의	준비팀에서 논의
	4월~5월	학부모의 밤 추진일정 확인	프로그램 기획 및 검토
	6월	학부모의 밤 사업 실시(6월22일)	학부모 130여명, 교사 20여명 참여

▶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 수: 197명 (총 350명 중 197명, 56.3%)

❖ 어머니의 취업실태

종일근무: 26.6%

시간제 근무: 13.3%

자영업: 18.6%

전업주부: 41.5%

❖ 부모교육 내용 선호도(중복응답)

자녀의 진로진학지도: 60.4%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46.2%

자녀와의 의사소통: 52.8%

청소년 문화의 이해: 45.2%

▶ 2006년 학부모 아카데미 실시

❖ 연인원 200여명 참여

❖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일정	강좌명/강사	강사 약력
7월 12일(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하기1/ 전종천 선생님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실장
9월 12일(수)	고교 진학 설명회/이종윤, 박홍선 선생님	백암중학교, 백암고등학교 교사
10월 19일(목)	자녀와의 의사소통/정찬석 선생님	한국 청소년 상담원 선임 연구원
11월 2일(목)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만들기/박동혁 선생님	이주대학교 심리상담센터 학습능력 개발 팀장
11월 9일(목)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하기2/ 전종천 선생님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실장
11월 18일(토)	김병조와 함께 생각하는 자녀교육/김병조 선생님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 초빙교수 (고전강좌, 명심보감)

▶ 2007년 학부모의 밤 실시

❖ 6월 22일 오후 3시 ~8시

❖ 학부모 130여명, 교사 20여명 참여

일정	프로그램명	내용
1부 3시~ 4시30분 강당	팝송부르기 대회	학급별로 준비한 팝송 부르기 경연대회를 열고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관람한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2부 5시~ 6시30분 강당	교장선생님 인사와 경과보고	학부모의 밤 취지 안내
	공연	팝송부르기 대회 입상학급의 학부모님들을 위한 재공연
	마음 나누기	학부모, 교사가 몸을 부딪치며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놀이
	학생활동 둘러보기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결과물 전시와 관람
	급식체험	학급별로 학부모와 교사가 급식을 함께 하며 서로 인사하는 시간
3부 6시30분~ 8시 급식실	학생활동 영상보기	2006년 학생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공감해보는 시간
	학급별 담임선생님과 대화	담임선생님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소지쓰기와 촛불 나누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한지에 적고 운동장으로 나가 미리 준비된 곳에 소지를 걸고 촛불을 나눈다. 다음날 자녀가 학교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한다.

▶ 백암중학교 학부모의 밤 사업 평가

▷ 긍정적인 점

- 2007년에는 준비팀이 모여 회의도 하고 일도 분담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는 했지만 행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들 간에도 교류가 많아서 좋았다.
- 저녁 시간에 생각보다 참여가 많았다. 특히 학부모의 밤 행사하던 날 몸이 불편한 어머니 한 분이 3년만에 처음 학교에 와보신다며 눈물을 흘리셔서 감동적이었다.
- 급식체험이 좋았다.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 수 있었고 실제로 먹어보니 괜찮았다.
- 동영상보는 것 좋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고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고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도 기분 좋았다.
- 소지쓰기와 촛불나누기도 좋았다.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고, 촛불을 들고 나가면서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촛불을 놓은 학교의 모습이 너무 예뻐다. 아이들 행사에서도 활용하면 좋겠다.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는데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함을 알았다.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학부모 아카데미 중 인터넷중독에 관한 강의에 특히 흥미를 보여 학생들과 함께 듣는 프로그램으로 한 회를 더 진행하기도 하였다.
- 2007년 학부모의 밤은 학부모의 밤 운영모델의 실험적 적용의 의미가 높았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와 교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사들도 준비하는 동안의 무관심과는 반대로 행사 당일 참여는 적극적이었으며, 평가에서도 “학부모들과 부담없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소지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좋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 학부모의 밤 사업이 백암중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어 나누기’ 등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나눔사업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 좋은 기회가 백암에 제공되어서 좋은 경험을 하였다. 가능하다면 중학교에서 급식체험을 포함한 저녁모임 등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 실시해볼 만하다고 본다. 오히려 중학교보다 참여와 기대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소그룹 토론방 같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도 같고, 학년별로 학부모의 밤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학생, 학부모 간의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 개선되어야 할 점

- 학부모와 교사로 준비팀을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06년에는 학운위원장이 혼자 애를 썼지만 2007년에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한 것이 소득이다. 프로그램 기획에 주도적이지는 못했지만 학교행사에 요구사항을 이야기한 경험을 갖게 된 것이 좋았다.
- 교장 선생님의 관심은 높았지만 실무적인 면에서 지원이 부족했고, 교사들의 관심이 적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당교사 혼자 애를 쓰는 상황이 되었다. 학교 전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부모 아카데미의 경우 참여인원이 적어서 아쉬웠다. 실험적으로 토요일 강의를 시도하였는데 시골 마을의 특성상 그날이 다 함께 김장을 하는 날이어서 참여가 저조하였다. 도시가 아닌 시골의 경우에는 마을의 행사일정과 학교행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흥미있는 주제였음에도 강의 일변도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좀 지겨운 느낌이 있었던 점도 아쉬웠다.
- 급식체험 행사 이후 학급 모임에서 주위의 소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편안하고 밀도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강당에 냉방시설이 없어서 힘들었다. 공동체 프로그램의 경우 몸을 움직여야하는데 덥다보니 집중할 수 없었고 좀 어색하여 재미가 없었다.
- 실험적인 프로그램이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학교에서 학부모의 밤을 정례화할 경우에는 학급모임의 성격과 부모들 간의 친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밀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 학부모의 밤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준비위원들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솔직히 백암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단독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마 다른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려고 해도 단위학교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학교 특성과 상황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개발되고 제공된다면 이를 변형하는 정도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 백암중학교 학부모의 밤 행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 자녀의 학년은? (두 명 이상이 다닐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응답자 91명(이중 두 자녀가 다니는 경우 27명은 높은 학년으로 처리하였다)

1학년: 33명, 2학년:14명, 3학년: 44명

❖ 총 참석자를 130여명으로 추산할 때, 약 70%의 응답률을 보임

2.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① 부모 모두 ② 어머니 ③ 아버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부모모두	2	0	0	2
어머니	31	14	41	86
아버지	0	0	3	3
합계	33	14	44	91

❖ 응답자 중 아버지가 참여한 가구는 5가구로 전체 응답자 가구의 6%로, 아버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3. 2,3학년만 응답해 주십시오. 2006년의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가하셨습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그렇다	0	6	23	29
아니다	0	7	21	28
무응답	33	1		34
합계	33	14	44	91

❖ 2, 3학년 응답자 중 작년의 아카데미 참석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2%로, 아카데미 참석자가 학부모의 밤 행사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4. 급식체험행사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의미있다 ② 의미있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별로 의미없다 ⑤ 전혀 의미없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의미있다	10	3	14	27
의미있는 편이다	15	8	15	38
그저그렇다	6	1	15	22
별로 의미없다	2	2	0	4
전혀 의미없다	0	0	0	0
무응답				0
합계	33	14	44	91

❖ 급식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본 응답자는 약 71%로이며 3학년의 반응이 덜 긍정적인 것은 학교생활의 연수가 높아서인 것으로 보여진다.

5. 급식의 질과 양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개선이 필요하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만족	3	0	2	5
만족	16	8	21	45
보통	11	4	17	32
개선필요	3	2	4	9
무응답				
합계	33	14	44	91

❖ 급식의 질과 양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5%,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35%,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10%나 된다. 6번의 자유 응답에서 보여지듯이 아이들에게 듣는 급식에 대한 정보가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 작용한 것 같다. 작년에 직영 급식으로 바뀌면서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절대 수준의 문제인지, 기대수준에 못 미쳐서 그런 것인지 학교와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버리는 곳 옆에 식수대가 같이 있고, 물 마실 때도 학생들이 모두 입을 대고 마셔서 비위생적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국이나 반찬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식판이 좀 깨끗한 것 같다. 위생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

-메뉴, 맛, 개선이 필요하다. 우유추가, 과일추가, 육류와 어류의 비율을 늘렸으면 한다.

-식사 시간과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7. 반 단위의 모임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그렇다	5	3	7	15
그렇다	13	7	19	39
보통이다	12	3	17	32
그렇지 않다	3	1	1	5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0
무응답				0
합계	33	14	44	91

❖ 반모임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0%,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5%이다. 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9번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식당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환경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에는 좀 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반 모임이 이루어지고 담임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8. 급식 후 담임선생님과의 대화는 만족스러웠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한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매우 만족	9	2	5	16
만족	15	9	34	58
그저 그렇다	7	2	5	14
별로 만족하지 않음	2	0	0	2
전혀 만족하지 않음	0	1	0	1
무응답				0
합계	33	14	44	91

❖ 반모임의 만족도(60%)에 비해 담임선생님과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81%)가 높은 것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에 대한 만족도로 이해된다. 특히 10번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담임선생님과의 대화를 꼽거나, 14번 소감에서 부담없이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기회를 가진 것에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학부모의 밤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담임 선생님과 대화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환경 뿐 아니라 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와 부모가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진행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반모임과 담임선생님과의 대화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담임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 식당이 어수선하고 웅성거려 선생님이나 다른 학부모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각 반 교실에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한 곳에서 여러 반이 웅성거리어서 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다.

10. 2부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소지쓰기와 걸기 ② 노래공연 ③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④ 마음나누기 프로그램
 ⑤ 동영상관람 ⑥ 급식체험 ⑦ 기타(적어주세요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소지쓰기와 걸기	59	15	55	129
노래공연	107	38	124	269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114	54	147	305
마음나누기	62	18	51	131
동영상관람	53	14	53	120
급식체험	64	35	93	192

❖ 좋았던대로 순서를 쓰게 하였으므로 중복응답자 및 무응답자 일부 있음

❖ 순서별로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음

❖ 프로그램 중에서는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에 대해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 코너와 자녀들의 학교 활동을 볼 수 있었던 노래공연 관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급식체험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지쓰기의 경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이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시간에 쫓긴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마음나누기의 경우도 강당이 너무 덥고 앞부분의 교장 선생님 말씀이 너무 길어 학부모들이 지친 것이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자유롭게 응답한 부모들 중에서 이들 코너를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과 학부모들이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학부모의 밤 행사가 학교-학부모의 신뢰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그렇다	23	11	28	62
아니다	1	1	3	5
잘 모르겠다	6	2	12	20
무응답	3		1	4
합계	33	14	44	91

❖ 70% 이상의 응답자가 학부모의 밤 행사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개방형 질문인 14번에 답하면서 급식체험, 학교행사 등 학교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학교의 준비와 노력에 감사한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이 공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높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12. (1, 2학년 학부모님만)내년에도 학부모의 밤 행사가 열리면 참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그렇다	24	10	15	49
아니다	1	2	0	3
잘 모르겠다	6	2	9	17
무응답	2			2
합계	33	14	24	71

❖ 3학년 응답자는 저학년에 자녀가 있는 경우임

❖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학부모의 밤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 학부모의 밤 행사에 개선해야 할 점이나 포함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대화의 시간 등이 있었으면 한다.
- 졸업생, 선배 초빙 간담회, 초빙강사 강연이 포함되면 좋겠다. 각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정보나 앞으로 각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참가한 학부모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한다.

- 너무 더웠다. 소지쓰기한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날씨도 고려했으면...
- 행사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아이들 공연부터 학부모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14. 학부모의 밤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간단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았다.
- 팝송 경연대회와 급식체험이 좋았다. 아이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학부모들 간의 친목도모에 큰 역할이 된 것 같다. 학년이 다르면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같은 마을에 살면서 최소한 한 학교 학부모인 것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즐겁고 재미있었다.
- 만나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날씨가 더워서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행사 내용은 좋았다.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좀 더 많이 준비했으면 하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선생님과 함께 급식으로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담임선생님을 (부담없는 자리로) 만나 뵈게 되어서 좋았다.
- 학교의 운영방침이나 새로운 계획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담임선생님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좋았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 산만하고 쓸쓸했다. 형식적이 아닌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어우러지고 교감이 통해 전해지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준비한 팝송경연대회가 무척 즐거웠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다.(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활동을 보고 참여하고 싶다는 표현인 듯) 레크리에이션도 어색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경험이고 즐거웠다.(좀 덜 덥고 앞에 교장 선생님 인사가 짧아서 덜 지쳤다면 훨씬 즐겁고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 내 자녀가 준비하고 공연하는 것을 보니 대견했다. 이런 행사로 아이의 학교생활도 알게 되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따로 학교에 갈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하여 학교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것이 많이 엿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참석만 하는데도 충실히 모든 시간을 채워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신 만큼 학교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고 우리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아이의 생활을 보고 알게 된 것, 선생님과 만나 밥먹고 대화한 것, 소지쓰기 등 모든 게 좋았습니다.

3) 동천초등학교

▶ 사업 진행일정

년차	일정	사업내용	비고
2006년	6월	학부모의 밤 사업 학교에 제안	교장선생님과 면담
	7월	사업추진 확정	
		설문조사	전체 학부모 대상(400명)
	8월	설문결과분석	
	9월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정	교장, 교감 선생님과 협의
10월~11월	6회 아카데미 프로그램 실시	연인원 220여명 참가	
2007년	4월	학부모의 밤 추진방향 논의	담당교사와 협의
	5월	학부모의 밤 추진일정 확인	
	6월	학부모의 밤 사업 실시	6월 13일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연극 (25가정, 50여명 참여)
			6월 14일 자녀와 함께하는 북아트 (25가정, 50여명 참여)

▶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 수: 303명 (총 400명 중 303명, 75.8%)

❖ 어머니의 취업실태

종일근무: 22.4%

시간제 근무: 12.9%

자영업: 7.3%

전업주부: 57.4%

❖ 부모교육 내용 선호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78.2%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63.7%
 자녀의 진로 진학지도: 37%
 청소년 문화의 이해: 36.6%

▶ 2006년 학부모 아카데미 실시

- ❖ 연인원 220여명 참여
- ❖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일정	강좌명/강사	강사 약력
10월 12일(목)	내 아이 영어교육 어떻게 할까 / 이남수 선생님	〈엄마, 영어방송이 들려요〉 〈우리아이 영어 공부 이게 궁금해요〉 저자 키즈 잉글리쉬 자문위원, 솔빛 엄마 초등영어 게시판 운영 중 울산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10월 19일(목) 10월 26일(목)	자녀와의 의사소통 / 김남희 선생님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전문 강사
10월 31일(화)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 / 송재희 선생님	〈몸이 즐거운 체질 학습법〉 〈모든 10대는 엘리트가 될 권리가 있다〉 〈대중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상상력을 죽이면 소프트웨어는 없다〉 저자 초암논술 아카데미 대표, 문화예술아카데미 풀로 엮은 집 이사
11월 2일(목)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하기 / 전종천 선생님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기획실장
11월 9일(목)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는 학부모 코칭/ 고현숙 선생님	한국코칭센터 대표, 한국리더십센터 부사장, 한국코치협회 인증 비즈니스 코치 코칭 클리닉 퍼실리테이터, 소중한 것 먼저하기 퍼실리테이터, 성공하는 리더들의 일곱가지 습관 퍼실리테이터

▶ 2007년 학부모의 밤 실시

- ❖ 학부모의 밤 운영모델: 부모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

는 다중지능을 통한 창의력 향상 국어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함.

❖ 각 회 25가정, 50여명 참여

일정	프로그램명	강사	내용
6월 13일	교육연극	정지은 외 1명	자녀와 함께 공동체 놀이를 통해 배우는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놀이
6월 14일	북아트	김지연 외 1명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을 통해 소통하는 프로그램

▶ 참가자 평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저녁시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높인데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 아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다른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동네의 이웃처럼 느껴졌습니다.
- 참여하기 전까지 갈등은 있었지만 참석하여 보람있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어 마음을 다잡는데 좋았다.
-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의 행복함.
- 아이와 공감할 수 있었다.
-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가 많은 탓에 부모교육을 이래저래 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특히 인터넷 부분 등을 더욱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연극

▶ 평가

▷ 긍정적인 점

- 참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 프로그램이 학교에 대한 신뢰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 2007년의 경우 학교의 연구학교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다수 교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 초등생 학부모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 개선되어야 할 점

- 동천초의 경우 교장, 교감의 동의를 얻어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다수 학부모들의 학교참여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 관계자들 또한 소극적이었다.
- 단위학교에서의 학부모의 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개방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한데 동천초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불안감이 학부모들의 준비과정 참여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머니회등을 통한 급품 수수 등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 모임 자체를 회피하는 변명거리를 제공하기도 함)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과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교평가의 요소가 됨으로써 학부모 학교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단위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이 사업이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인가 아닌가가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밤 사업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교장의 결심 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우중고등학교

▶ 사업 진행일정

년차	일정	사업내용	비고
2007년	2월	학부모의 밤 사업학교에 제안 학부모의 밤 사업 확정	학교, 학부모회와 협의
	3월	학부모의 밤 추진 방향논의	학부모회와 협의
	4월	학부모의 밤을 위한 준비팀 구성	학부모, 교사 준비팀구성
	5월	학부모의 밤 주제와 일정 확인	준비팀 기획회의
	6월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 논의	
	7월	학부모의 밤 사업 실시 7월16일(월) ~ 7월 17일(화)	176가구 250명 참가 (전체 350여 가구 중 약 50%참여)

▶ 2007년 학부모 캠프: “꿈꾸는 이우공동체” 프로그램

❖ 7월 16일(월)

시간	행사내용	기타
7:00~ 7:30	등록 및 들어가기	등록과 인사 나누기
7:30~ 8:50	식사(급식체협)	급식실에서 저녁과 간식 준비
8:50~ 9:00	들어가기 편지읽기와 맞결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로 대표가 맞결
9:00~ 9:30	영상보기	학생 활동에 관한 동영상 상영
9:30~ 9:50	OX퀴즈	학교의 작은 소식들을 퀴즈로 함께 해보기
9:50~11:10	모듬활동과 공유	참가자들이 7팀으로 나뉘어 각 팀이 주제에 따라 모듬활동 실시한 후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
11:10~11:40	명상 및 소원지 쓰기	'미안해' '사랑해'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소원지에 써서 벽에 붙여 놓아 아이들과 공유
11:40~12:10	촛불의식	촛불을 켜고 함께 한 후 소원의 자리에 촛불을 둔다

❖ 7월 17일(화)

시간	행사내용	기타
8:30~ 9:30	아침식사	급식실
9:30~ 10:00	들마루 현관식	학부모들이 지은 정자 현관식과 작은 축하공연(졸업생)
10:00~12:30	학부모 축구시합	각 학년 및 교사팀 7팀이 축구 경기
12:30~1:00	정리 및 폐회	학교 주변 청소와 마무리

▶ 참가자 평가

- ❖ 전체평가 :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서 모처럼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급식으로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도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정례화하자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 ❖ 학교에서 해서 좋았다. 멀지 않아서 늦게라도 올 수 있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올 수 있었다.
- ❖ 급식체험(음식)이 너무 좋았다.
- ❖ 소원지쓰기가 좋았다. 아이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었다.
- ❖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진행이 늘어지지 않아서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참여하면서 놀게 하려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하기 위해 기획팀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 ❖ 공동작업이 좋았다(중1). 개인작업과 집단과제가 함께 있는 방식의 진행이 좋았다.
- ❖ 사회자, 기획 등에서 학부모들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되었는데 학부모의 입장과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 ❖ 비가 안 왔다면 운동장에서 모닥불놀이도 하고 좀 더 시원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 ❖ 둘째 날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했다. 다음에는 하루를 길고 진하게 보내는 프로그램도 고민해 보자. 1박을 하는 캠프가 무리일 지도 모른다.

▶ 이우중고등학교 학부모 캠프 평가

▷ 긍정적인 점

- 학부모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한 문화행사로, 많은 부모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긴다는 애초의 목표를 실현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참여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와 소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학부모 12명과 교사3명이 함께 기획하고 여러 번의 준비 모임을 통해 학부모들의 원하는 바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준비과정에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여 함께 하는 캠프가 될 수 있었다.
- 모임의 날짜를 빨리 확정하여 미리미리 홍보를 하였으며, 반모임과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 학교를 돌아보고 급식을 체험하는 등 학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이 긍정적이었다.
- 학년 별로 이루어진 모둠활동과 발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다.
- 학부모가 중심이 된 내부의 힘에 의한 기획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 개선되어야할 점

-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 학년 모임이나 반모임과 달리 전체가 함께 하는 캠프인 만큼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 준비팀을 더욱 확대 구성하고 전문가들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학부모들의 평소의 활동을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발표의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노래패와 학부모들이 하나될 수 있는 공연을 보강하는 등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학교의 일정을 맞추다보니 학기말 바쁜 시기여서 학교의 지원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다.

2. 성남지역 저소득 가정 지원 학부모의 밤 사업보고

1) 사업진행일정

일정	사업추진내용	세부결정사항
4월	성지연 대표자회의에 학부모의 밤 사업 제안	대표자회의로부터 각 기관에서 검토하기로 함
5월	4개 기관과 연대하여 학부모의 밤 시범 추진하기로 결정	성남 꿈나무 학교, 새롬 지역아동센터, 성남 즐거운학교, 1318 해피존 모람아지트
	1차 준비모임 구성	학부모의 밤 사업의 의의와 프로그램 진행 방향 협의
6월	준비모임 진행	치유적 성격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나들이 형태를 취하기로 결정
7월	준비모임 진행	나들이 장소, 일정 등에 대한 결정
8월	준비모임 진행	프로그램 진행자의 공부방 방문, 사전 설문조사 진행, 홍보물 배포, 프로그램 내용 세부확정
9월	캠ป์ 진행과 평가회	9월 8일 학부모 나들이 진행 4개 기관에서 40여명 참여

2) 준비 과정

▶ 참여 기관의 학부모 상황조사

구분	아동수	부모 상황	특기사항
꿈나무학교	20명	한부모 9, 부모5, 조손3, 다문화1	
새롬	25명	한부모 3, 부모 대부분	저소득 맞벌이 다수
즐거운 학교	41명	한부모 16, 부모 10, 조손2, 다문화1	
모람아지트	58명	한부모 24, 조손2, 다문화 1,	저소득 맞벌이, 편부가정다수

▶ 학부모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 가족형태

	새롭	꿈나무	즐거움	모람	전체
부모	6	7	4	10	27
편부	4	2		2	8
편모	5	3	3	2	13
조손		1		1	2
친척			1		1
계	15	13	8	15	51

- ❖ 부모가 함께 살면 형제, 조부모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부나 모가 있으면 조부모, 형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편부 또는 편모
부, 모가 없고 조부모와 동거할 경우(형제 포함) 조손
부, 모, 조부, 조모 없이 친척과 동거할 경우(형제 포함) 친척

- ❖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51명 중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27명(53%)이고 기타의 경
우는 24명(47%)임을 알 수 있다.

▷ 근무형태

	새롭		꿈나무		즐거움		모람		전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일반적 근무형태	7	5	3	6	1	3	3	8	36
매일 야근, 밤근무						1			1
근무시간 불규칙	2	2			1		1	1	7
근무일 불규칙	1	4	3		2	3	6		19
교대근무		1	1		2			1	5
일하지 않음	3		2	2			1	1	9

❖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77명중 41명(53%)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최근하는 일반적 근무형태가 아닌 직업이거나 실직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 모임이나 교육 필요성

	새롬	꿈나무	즐거움	모람	전체
필요하다	14	12	8	12	46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1		1	3
무응답				2	2
계	15	13	8	15	51

❖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부모 모임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모임, 교육, 개별상담 참여의향

	새롬	꿈나무	즐거움	모람	전체
참여하고 싶다	10	9	7	10	36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			1
잘 모르겠다/무응답	5	3	1	5	14
계	15	13	8	15	51

❖ 36명(70%)의 부모들이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교육 원하는 내용

	새롬	꿈나무	즐거움	모람	전체
자녀와의 대화 방법	7	7	2(1)	4	20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	1(1)	2(2)	2	5	10
자녀 성교육,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등	5		1	2	8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관련 대처 방법	-1	3(1)	1	1(1)	5
공부, 학습 지도 방법	1(1)	1(1)	1(2)	2(1)	5

기타	1		1	1	3
계	15	13	8	15	51

❖ () 두 개씩 응답한 경우 추가

❖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은 자녀와의 대화, 아이들 이해하기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고 싶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 자녀교육 이외의 학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새롭	꽤나	즐거	모	전
부부갈등 해소, 부부 의사 소통 방법	6	1		3	10
자립을 위한 경제 교육	4	5	1	6	16
컴퓨터 교육	1	3	2		6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	2	2	3	2	9
기타/무응답	2	2	2	4	10
계	15	13	8	15	51

❖ 자녀교육 이외의 교육으로 원하는 것은 생활 상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교육(16명, 31%)을 비롯하여 부부관계 개선, 취미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캠프 안내문 발송

여느 해보다도 긴 장마에 계속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강한 바람까지. 지난여름의 심술을 뒤로 하고 어느덧 가을을 알리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들 곁에 살포시 다가와 미소 짓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일상을 벗어던지고 나와 내 아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실의 무게감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떠나는 편안한 여행으로 나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의 의미도 되새기며.. 내 아이를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들만의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내문 중에서)

3) 학부모 캠프: “만남과 어울림이 있는 가을 나들이”

▶ 일시: 2007년 9월 8일 오전9시~오후 11시

▶ 장소: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 참가자: 36명(아버지 참여 9명 25%)

❖ 모람 이지트: 학부모 9명, 교사 4명

❖ 새롬지역아동센터: 학부모 9명, 교사 1명

❖ 성남꿈나무학교: 학부모 4명, 교사 1명

❖ 성남즐거운학교: 학부모 7명, 교사 1명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진행
9시-12시	버스로 이동, 소개의 시간	각 기관별로 준비한 동영상 상영
12시-1시30분	식사와 자유시간	유기농 음식과 차, 자유 산책 컨셉이 있는 사진촬영, 선물준비를 위한 밥 따기, 비상용 호루라기 집 만들기
1시30분-2시30분	소개, 인사나누기	행사 진행팀 인사와 기관별 참여 학부모 자기 소개
2시 30분-4시	바느질하기	자신을 위한 선물 만들기(친인형 핸드폰 고리)
4시-6시	춤 세라피	자존감 회복 및 섬을 위한 세라피
6시-8시	저녁 식사와 마무리	관계향상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음나누기
8시-11시	버스로 이동, 설문작업	평가설문,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바느질 하는 아버지

▶ 참가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응답자 28명 (어머니 21명, 아버지 7명)

프로그램 후에 실시한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가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행사 참여를 통해서 동료 학부모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교사와 공부방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반응이 높았으며, 이후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대부분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녀 이해하기, 대화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4) 성지연 학부모 캠프 평가

▶ 긍정적인 점

- 각 기관의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함으로써 기관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었다.
- 성지연 내에서의 연합프로그램의 경험을 쌓았다.
- 학부모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학부모들과의 만남과 소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 학부모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정들 간의 교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부모 캠프를 통해 학부모들이 기관과 지역 나아가 연대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

▶ 개선해야 할 점

-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학부모의 참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학부모들 스스로 기획의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하다.
- 캠프 이외에도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부모의 교육시간에 자녀 돌봄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발표자 원고

1. 용화여고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윤지희_용화여고 학부모 운영위원)

Ⅰ 57

2. 저소득 가정 지원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오일화_1318해피존모람아지트 교사)

Ⅰ 78

3. “학부모의 밤” 사업 평가와 향후 전망 (이세용_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Ⅰ 91

만남과 소통을 위한 용화여고 학부모의 밤 사례

윤지희 (용화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차 례

1. 들어가기
2. 학부모 아카데미
 - 1)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 2) 학부모 아카데미의 특징
 - 3) 학부모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
3. 학부모의 밤
 - 1)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
 - 2) 학부모의 밤 만족도 조사
4. 성과와 한계
5. 학부모의 밤 정착을 위한 교육주체의 노력

1. 들어가기

용화여고는 서울 북부에 소재하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이다. 우리나라의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에 열중한 일반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참여는 학년 초에 갖는 학부모 총회나 대학 진학 설명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나마 급식 모니터링이나 교복 공동구매 활동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이 진전된 학부모 활동이라 할 것이다.

처음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측의 학부모의 밤 행사 제안을 받았을 때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생소함과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덤벼들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화여고는 한참 학생 교육에 대한 열의뿐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의 신뢰 형성에 중요성과 비중을 두고 있었던 터라 학부모의 밤 행사가 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 연구소 측의 재정적, 내용적 지원이 이를 수행할 용기를 갖게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몇 개의 학교와 그동안 학부모와 공동 협력 속에 학교교육의 변화를 시도했던 학교들의 경험을 듣고 토론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막연하고 막막했던 학부모의 밤 행사에 대한 상을 그릴 수 있었고 용화여고 현실에 맞는 독자적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진행하였던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행사를 할 경우 사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질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화여고에서 추진한 학부모의 밤 행사는 단지 하나의 행사의 의미보다는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쌍방향적으로 학교와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의미가 클 것이며, 이는 여러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학부모 아카데미

1)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 학부모 아카데미를 시행함에 앞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600명 학생의 학부모에게 배포하여 1017명 회수, 응답률 63.6% 기록하였다. 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응답률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서는 전업주부가 41.5%, 시간제 근무를 포함하여 취업주부가 58.9%로 그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

· 2006년 1학기 동안 학교 방문 횟수는 1회 이상이 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담임과의 상담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생활문제(44.4%)와 학교 성적(41%)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한 학기 동안 학교를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학부모의 가장 큰 이유는 “낮에는 경제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60.3%,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서”가 28.9%로 시간 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적인 부분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학부모들이 학교에 원하는 연락 또는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가정통신문’ (43.4%)과 ‘문자메시지’ (43.5%)를 가장 선호하였다.

·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도는 높다(47.8%)와 보통(40.3%)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경험은 10.6%로 낮은 수치였다.

· 아버지의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아버지를 위한 부

모교육 시간대로는 토요일 오후(32.2%)와 일요일 낮(24.5%) 등 주말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 부모교육 강좌로 선호하는 내용(2개 중복 응답)은 자녀의 진로 진학 지도가 75.9%,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이 61.5%, 자녀와의 의사소통 60.1% 순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 프로그램(3개 중복 응답)으로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간 정보 교환' (65.6%), '청소년 문제 전문가 강연' (55.9%), '학교운영방침 질의 응답' (51.4%),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46.8%)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욕구도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온 특징을 요약해 보면

i) 자녀교육 주 담당자인 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전업주부 이외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학교 행사나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혹은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학부모 모임 등을 위해 자의 또는 타의로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전일제로 일하는 취업모의 경우 학교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낮에 경제활동으로 시간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ii) 이러한 점은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에 아버지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버지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거의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낮에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iii) 현재 학교에서 부모에게 의사소통 경로로 활용하는 가정통신문은 대체로 확인하지만 자녀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전화, 학부모 연락망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부모들은 성적 뿐 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간에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적이나 학교 생활과 관련해 학교의 운영방침 등을 알고 싶어 하며, 학교에 학부모의 의견을 건의하고 싶어 한다. 즉 학교와의 소통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v) 학부모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이들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자녀의 진로 진학 지도 등 직접적인 도움을 얻고 싶어 하며,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부모도 많다.

2) 학부모 아카데미의 특징

① 학교장의 전적인 동의와 지원하에 진행

학교의 모든 행사는 학교장의 허락과 지원이 없이는 시행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아카데미 역시 학교장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도, 성공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용화여고의 경우 이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인 「함께여는교육연구소」에서의 사업제안이 있자마자 학교장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원, 관심속에 진행을 하였다. 이것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킨 큰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교구성원 모두의 공감 속에 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학교구성원들의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논의되고 자문하는 내용의 중요성은 무시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용화여고는 사립학교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비교적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행사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학

교 자체 예산으로 2차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을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③ 맞벌이 부모, 아버지 참여를 위해 밤 시간대에 행사를 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렇듯이 용화여고 역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낮 시간대에 개최되어 왔다. 학부모 총회, 대학 진학 설명회 등이 일과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학부모 모임의 문화를 만들어보 고자 밤 시간대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아카데미 강좌에는 매회 열분 내외의 아버지들이 참여하였고 직장 끝나고 오는 어머니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 교사, 학부모 동수의 준비팀을 구성하여 진행

기존의 학부모 대상 행사들은 학교에서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처음부터 준비하고 추진하였던 것이 가장 의미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요구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확정이나 당일 행사 진행, 행사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사 3인과 학부모 3인의 준비팀이 진행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이고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고, 공동 진행을 통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⑤ 학부모 의견조사를 토대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구성

그동안 학교의 학부모 대상 행사란 학년 초에 개최하는 학부모 총회나 대학 진학 설명회 정도가 대부분이다. 학부모 총회는 학교에 대한 소개나 담임과의 면담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대학 진학 설명회는 말 그대로 대학 입시를 위한 당부와 입시 전략 정도가 내용을 이룬다. 매년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와 요구도 없이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아카데미 시행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학부모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시간대에 참여가 가장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학부

모 아카데미를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직업 유무나 선호하는 프로그램, 관심 사항, 아버지 교육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지도 외에도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학부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학부모 코칭'과 같은 강좌도 편성하게 되었다.

⑥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고심하여 만든 프로그램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함께여는교육연구소」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학부모 아카데미 사전 요구조사에서부터,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가정 통신문 배포, 현수막 부착,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 독려 등 여러 각도의 홍보에 힘쓸 수 있었다. 기존에 가정 통신문 정도만 배포하였다면 학부모들의 손에 직접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⑦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와의 소통의 기회를 가짐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한 번의 행사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담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5회의 강좌로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단지 강좌만 듣고 돌아가게 될 경우 학교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목적은 거의 달성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마지막 5회 강좌 끝나는 시간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학부모 아카데미 참여 소감, 학생 용의 복장 지도방식에 대한 불만, 엄격한 규율 문제 등 학교에 대한 건의들도 자연스럽게 개진되었다. 학교측으로서는 예상치 않았던 날카로운 요구 사항들도 제기되었지만 학부모들의 진솔한 생각을 들을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학교로서도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은 학교의 발전과 학부모들과의 신뢰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피해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3)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날짜	강좌명과 강사	참가 인원(등록부에 기재된 인원만 체크)
10월 25일	고3학부모를 위한 진로지도 (오종운 선생님)	등록자: 97명(실제 110여명 참가)
11월 1일	고1,2학부모를 위한 진로지도 (오종운 선생님)	등록자: 98명(실제150여명 참가)
11월 7일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 (송재희 선생님)	등록자:77명(실제 90여명 참가)
11월 22일	자녀와의 의사소통 (임춘희 선생님)	등록자:49명(실제 60여명 참가)
11월 29일	학부모 코칭 (남관희 선생님)	등록자:44명(실제 60여명 참가)

❖ 등록부 상 연인원 365명, 한 회 평균 약 73명 참가

❖ 실제 참석자 연인원 479여명 참가, 한 회 평균 약 96명 참가

4) 학부모 아카데미 설문 조사(3회 강좌에서 배포 및 회수)

① 설문 참가자: 총 60명

② 1회 강좌 참석자(7명) 2회 강좌 참석자(34명)

(3회 강의 참석자의 50% 이상이 1회 이상 앞 강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참가하는 사람이 계속 참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가자의 강의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③ 강의 만족도: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매우 만족 34, 만족 24, 보통 1)

④ 4,5회 강좌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0% 이상이 있으므로 응답

* 4회 참가 예정(50) * 5회 참가 예정(45)

⑤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한 전반적 의견

- 구성이 매우 잘 짜여져 있다

- 강사 섭외가 돋보인다.

- 문자 메시지 감사하다.
- 퇴근 시간 이후에 배치해서 좋다.
- 매우 유익하다.
- 여건이 되면 남편, 아이와도 함께 듣고 싶다

⑥ 학부모 아카데미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

- 강좌 요일을 다양하게(토, 일요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 홍보, 적극적인 참여권유가 필요하다.
-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 학기 초에 강좌를 개설하면 좋겠다.

3. 학부모의 밤

1)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장 소	활 동
오후 6시-7시	급식 체험하기	식 당	반별로 모여 식사를 한다
오후 7시-7시30분	소지쓰기와 걸기	식당과 나무	두 장의 종이에 자녀에게 '사랑해'와 '미안해' 편지를 쓴다
오후 7시30분-8시	담임교사와 대화	식 당	반별로 모여 담임교사와 대화한다
오후 8시-9시30분	대동계	잔디운동장	학교장 인사말 미술 공연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물 상영 교사중창단, 학생 합창, 어머니 노래 공연 마음 나누기-잔디밭 밟으며 명상, 몸으로 생각 표현하기 선생님이 학부모님께, 학부모가 선생님께 편지 낭독 소망을 담은 촛불 밝히기

2)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의 고려 사항

①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만남의 장이고자 함

학교의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 삼위일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갖는지 학교도 학부모도 잘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가 일부 보장되었고, 동원적 또는 재정 후원적 성격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부터 동반자적, 의사결정에 참여적 형태로 변모해야 한다는 당위와 의식의 변화는 일정부분 있어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현실화하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할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의 밤 행사는 그동안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불균형적이고 일방 통행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적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서의 동등한 만남, 학생의 진정한 성장에 협력하고 돕는 주체들의 만남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도록 하고자 했다.

② 일반적인 오락 프로그램을 지양하고자 함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의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이 보다 의미있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행사에서나 있을 법한 흥겹고 오락적인 프로그램 위주는 지양하고,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또 학부모로서 자녀와 교육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능한 한 담기를 소망하였다.

준비팀의 고민은 300여명 정도 되는 대규모 학부모들과 학부모의 밤 행사의 의미를 마음 깊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오락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학부모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프로그램들로 준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전문 진행자를 섭외하고 이러한 준비팀의 의도가 담길 수 있도록 주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③ 교사와 학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자 함

일회의 행사에 그동안 시행해보지 않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었기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학부모의



담임과의 대화의 시간

밤 행사는 학부모들끼리 모여 학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끌어가기로 하였다.

3) 학부모의 밤 행사 후 만족도 조사

- 응답자 중 아버지가 참여한 가구는 11가구로 전체 응답자 가구의 10%임, 아버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홍보방법이 필요함
- 2,3학년 응답자 중 작년의 아카데미 참석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0%임. 아카데미 참석자가 학부모의 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급식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본 응답자가 약 90%임. 그러나 “매우 의미 있다”는 응답자는 1학년이 다수이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듦.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연수에 반비례하는 응답으로 보임.

· 반모임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0%, 불만족하는 응답자가 10%임. 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식당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환경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임. 좀 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반 모임이 이루어지고 담임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꼭 필요함.

· 인상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소지쓰기와 걸기 및 부모들과의 친교활동의 성격을 가진 마음 나누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과 학부모들이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학부모의 밤 행사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 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0% 이상의 응답자가 학부모의 밤 행사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개방형 질문에 학교의 준비와 노력에 감사하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이 공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높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내년에 다시 학부모의 밤 행사가 열린다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학부모의 밤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학부모의 밤 행사에 참여한 소감으로는

- 행사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들과 매우 가까워졌다

- 즐겁고 뜻있는 밤이었다
- 같은 반의 부모들과 만나 경험을 나누어서 매우 의미 있었다
- 맞벌이 부모가 자연스럽게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 소지쓰기와 걸기 행사는 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더 사랑과 정이 솟는 듯했다
- 선생님과 여러 학부모와 격의 없는 대화와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학교와의 큰 벽을 헐어낸 것 같다
-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
- 삼위일체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자연스러운 학교방문의 기회가 되었다
-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4. 성과와 한계

1) 성과

① 학교의 위상 강화 및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감 형성

학교의 바람직한 위상이라 함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학생교육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 학부모를 위상 지움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행사를 통해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함께 개선해보자고 학부모들에게 손을 내밈으로써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② 건강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조성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준비에 참여하였던 학부모 준비위원들은 그동안 자녀가 초

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교의 행사나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왔지만 늘 학교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까 또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를 고민해 왔고 그러면서도 학부모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을 스스로 갖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회개가 존재하였다면, 이번의 준비 과정에서는 힘들었지만 보람과 성취를 느꼈다고 하는 소감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학부모의 자기 위치와 바람직한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었으며 동참한 학부모들 역시 학교가 학부모들을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느꼈다는 것이 그동안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생각과의 차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 활동을 할 때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담, 학교에 찍히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 등으로 학교와의 진정한 소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맡긴 약자적 위치에서 위축감을 갖는다던가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활동에는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비교육적 학부모관을 학부모의 밤 진행을 통해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학부모도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 교육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 시간으로 평가한다.

③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목전에 대학 입시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대학 진학에만 관심을 두고 학교의 교육기능도 그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진학에 앞서 자녀와 부모의 진정한 소통과 대화, 자녀의 아픔과 상황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④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 형성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 대부분이 대학 입시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행사는 인근 학교의 학부모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부러움을 주었다. 학부모 아카데미 참여자 중에는 당해 학교 학부모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부모들도 일부 참여하여 학교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부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갖는 정신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당해 학교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도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⑤ 제 2회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 성과를 끌어냄

외부 기관인 「함께여는교육연구소」의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기획 지원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박하게라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용화여고는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 행사를 치루어 본 결과 학부모들의 호응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시각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큰 것을 확인하여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2차 학부모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꾸러보기로 하고 학교운영 위원회에서의 예산 배정을 결의, 학교장의 지원 의지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한계

① 교사의 적극적 참여 마인드와 인식 제고

준비팀에 참여한 교사위원들은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의 밤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심분 이해하고 또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도록 학부모 위원과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교직원 회의에서 이들 행사에 대한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해 전체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우 부가적인 업무의 하나로 바라보거나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여전했다.

용화여고는 기존에 교복 공동구매나 체육복 선정 및 공동구매, 급식 업체 선정 및 급식 모니터링 활동, 학생 교문 지도, 시험 감독 등에서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학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부모 영역에서 학교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사고,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들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실천에서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변화된 역할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② 학교와 소통이 어려운 가정과의 연계 확대 필요

기존의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전업 주부,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고 교육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부모 아카데미나 학부모의 밤 행사는 밤 시간대에 개최함으로써 맞벌이 부모, 아버지들의 참여를 용이하도록 배려한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거나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용화여고 역시 서울 북부 지역에 소재하면서 급식비를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학생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학생들이 적지 않은 학교이다. 또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시에 거의 모든 학교교육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적절한 배려와 진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을 살피고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여전히 안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학교와 교사들만의 몫이라고 내맡기기보다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학교와 가정의 활발한 소통과 교육적 노력 중에는 학교가 미처 살피고 돌보지 못한 학생 및 가정과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학부모들끼리의 소통과 연계 방안 확대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 중에는 담임교사와의 대화 시간에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이 쏠렸었다. 그만큼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성적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와 상담을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학부모의 밤 시간에서 가진 담임교사와의 대화는 식당이라는 장소가 갖는 산만함 때문에 담임교사와 긴밀한 대화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다음에 개선될 사항이지만, 그것보다도 반 학부모들끼리의 만남은 담임교사와의 개별 자녀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대화에 머무르기보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급 생활에 대한 만족이 학생들의 정신적 만족에 절대적이므로 이들 학급 생활의 상황을 세세하게 살피고 이해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사항이다.

학급 단위의 학부모 모임, 학년 단위의 학부모 모임, 또 전체 학부모들 단위의 모임 등 다양한 집단적 학부모 모임은 개별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 균형적인 시각으로 학교와 교육을 바라보게 하여 이기심에 근거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할 우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제한적 정보를 근거로 학교를 판단하는 오류를 갖지 않게 할 수 있고, 집단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학교 교육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대표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와의 소통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계의 필요

학부모 아카데미 강좌에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갖긴 했지만 보다 더 긴밀하게 지역사회와 밀착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기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처음 시도해보는 행사에 너무 많은 요소를 집어넣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아직 학교가 지역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은 단계에서 선부른 시도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지 당해 학교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넘어서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의 역할과 소통을 고려해 보면 학교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들 역시 대학 진학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한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고민해 보는 시각의 변화와 확대도 가져올 수 있다. 학교 공동체는 단지 교사와 학생, 학부모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자기 위상과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교육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는 길이 되어 줄 것이다.

5. 학부모의 밤 정착을 위한 교육 주체의 노력

‘학부모의 밤’은 말 그대로 학교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 또 학부모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 가능한 시간대인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학부모의 밤’의 내용은 교육강좌나, 학교의 교육정보에 대한 안내, 문화 행사, 상담 시간 마련 등 학교의 필요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새로운 교육적 노력에 협력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부모의 밤’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며,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서의 위치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밤’은 단지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보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으로서의 의미와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새로운 학교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밤’, 즉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의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부 및 교육청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시작으로 학교교육에서 학부모들의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었지만 형식적 참여를 넘어선 내용적 참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장과 교사 일방의 학교교육의 주도로는 학교교육력 향상과 학교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음에도 학부모를 어떻게 학교교육에 동참시키고, 또 학부모가 학교교육에서 주체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거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당국이 “학부모와 같이 가는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여전히 부재하여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나 행정적 지원이 없었음에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밤’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원양성과정 및 교사 임용 후 교사 연수, 학교장 연수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교사의 인식과 역할,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연수과정에 편성되어야 한다. 교사, 교육행정가 모두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부모의 밤’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많은 학교들에서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학교(학교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나 행사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학부모의 밤' 역시 학교장이 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의사를 가질 때 성사될 수 있다. 학교장의 폐쇄적인 학교운영 또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운영 방식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도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낱알이 공개하도록 법 제정이 이루어졌고, 학부모도 교원평가(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짐으로서 학부모들로부터의 신뢰와 협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학교장은 그동안 미온적, 형식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허용하였던 데서 나아가 학부모들이 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할 동반적 관계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을 상설화하고, 학부모 상담을 정례화하며, 학부모가 참여할 교육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이러한 학부모 관련 사업들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학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교사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학부모 관련 행사도 부담스러워 한다.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됐지 왜 학부모들까지 챙겨야 하나"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부모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함께 협력과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교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서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며 협력할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게 가르치면서도 보람을 얻지 못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도울 길을 찾지 못한 채 제각각의 방식대로 교육에 매몰되어 있다.

학교와 가정은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 정신이 성장하고 쉬는 공간이자 세계이다. 가정이나 학교 어느 한쪽이 안정되지 않고 파괴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다. 아이들의 행복한 삶, 즐거운 배움, 건강한 성장은 학교와 가정의 공동의 노력과 소통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모의 참여와 도움으로 학생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구체적 실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학부모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 재정 후원자만이 아닌 학교교육에 의사결정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교사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주체, 교육의 주체는 더 이상 학교(장)와 교사 만에 국한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부실의 책임을 이제 학교와 교사에게만 지울 수 없다.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과 견제,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역시 학부모들에게도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제공해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소극적인 학부모 활동에서 벗어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학부모모임, 학교와 소통 구조, 학교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 확보는 학부모 스스로 나서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대해 학부모 모임,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학부모 관련 행사나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학교 예산 배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자발적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5) 학부모단체 및 교육운동 단체

‘학부모의 밤’ 및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은 개방적인 학교장이 있는 학교 또는 열성적인 일부 교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와의 소통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 권리 확대에 힘써 온 학부모 운동단체와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실천 활동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의 밤’ 사업을 시도하여 그 성과를 보여주고, 또 다양한 활동의

사례들을 모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면 ‘학부모의 밤’ 사업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일반화를 위한 교육행정청의 제도화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의 현장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서 ‘학부모의 밤’ 사업은 학교교육의 변화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저소득 가정 지원 학부모의 밤 보고와 평가

오일화 (1318 해미존 모람아지트)

1. 성남지역 저소득층 가족의 삶

성남시의 구시가지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일용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성남시는 90년대 분당구와 구시가지로 구분된 후, 구시가지는 상대적 빈곤지역으로 양극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분당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밀집지역과 숨 막히게 들어 찬 가옥과 가파른 언덕길, 밤이면 어두운 도시 한 가운데를 밝히는 유흥가의 화려한 불빛에 어른, 아이들 모두 지친 삶을 외면하며 거리를 걷고 있는 듯 분주한 모습들이다.

환경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는 성남시의 세대·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성남시의 세대수는 2001년 316,818세대에서 2005년 374,223세대로 18.1%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는 2001년 937,780명에서 2005년에는 992,758명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성남기획예산과 내부자료, 2006.) 인구증가와 함께 2002년 이후로 경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77,761명 중 성남시가 17,062명으로 가장 많아(성남시청 사회복지과 2005.) 저소득층이 성남시 전체 인구(992,758명) 중 약 2.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따라서 성남은 수급권 뿐 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잠재적 빈곤층 등 광범위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일 뿐 만 아니라 수급대상자 중 70% 이상이 한 부모, 조모 등의 해체가정으로 이에 따른

자녀의 보호 보육, 학교교육, 사교육, 진로 진학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남겨둘 수 없는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70%)가 가장 큰 어려움이나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양육, 교육의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을 지나 중등 과정으로 진학함과 동시에 이러한 교육 결손과 손실된 가족기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성남시 학업 중단 청소년은 매년 약 1,200여명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중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통계 참고)

이처럼 가출, 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교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학업 중단 위기의 상황에서나 학교와 관계하게 되면서(정원외관리대상 확인, 자퇴 확인 등) 자녀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인적 노력조차 기울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2. 저소득 가정의 사회적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학부모의 밤 사업의 필요성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은 주로 낮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프로그램에 참여가 쉽지가 않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이의 학교생활과 성장에 대한 정보나 교육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생활에서 위축감을 느끼게 되어 문제가 생겨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식당, 상업, 일용직 종사 학부모가 다수이며 한 부모, 조손 가정 등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아 가정이 해야 할 교육기능의 많은 부분이 결손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교육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조건을 갖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도 없으며 낮 시간에 학교 방문 또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문제, 교육 문제의 해결 중심에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 참고자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 아동들의 현황

(1318 Happy Zone 직부역량 강화 실무자 워크샵 자료 중에서, 2007.)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지역	대도시	328	35.5	급식비 지원여부	예	471	52.5
	중소도시	426	46.1		아니오	426	47.5
	농산어촌	170	18.4		합계	897	100
	합계	924	100				
성별	남	397	43.5	국기법수급	예	288	32
	여	515	56.5		아니오	613	68
	합계	912	100		합계	901	100
학년	초등4-6학년	594	64.8	모부자복지법 지원	예	164	20.5
	중,고생	323	35.2		아니오	637	79.5
	합계	917	100		합계	924	100
가족 형태	양부모가족	331	36.1	실직 여부	예	245	27.6
	모자가족	215	23.4		아니오	644	72.4
	부자가족	216	23.6		합계	889	100
	조손가족	137	14.9	질병	예	203	26.4
	기타(친척,시설)	18	2		아니오	565	73.6
	합계	917	100		합계	768	100
월평균 수입	무소득-70만원미만	291	34.1	주양육자학력	무학	60	7.4
	70-100만원미만	218	25.4		초·중학교졸업	199	24.4
	100-130만원미만	148	17.3		고등학교졸업	442	54.3
	130-150만원미만	98	11.4		2년제대학이상	113	13.2
	150만원이상	102	11.9		합계	814	100
	합계	857	100				
주관적 경제수준	아주 못사는 편	59	6.6	주거 현황	자가	224	25.7
	조금 못사는 편	281	31.6		전세	284	32.5
	보통이라고	424	47.7		월세	267	30.6
	조금 잘사는 편	88	9.9		친척집	39	4.5
	아주 잘사는 편	36	4.1		기타	59	6.9
	합계	888	100		합계	873	100

- 학교와 가정의 협력관계를 통한 자녀의 통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은 사교육시장을 통해 자녀교육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는 점점 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욕 나아가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학원을 보내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 그들에게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의미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결손 된 가족기능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중, 석식 지원, 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놀토 운영, 가족상담, 위기상담, 진학지도 등)

- 저소득 가정이 원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진로학습(48.4%)', '아동보호양육(39.7%)', '요보호대상 가족지원(38.3%)', '가족 공동 문화 활동(36.2%)'으로 저소득 가정 역시 자녀의 교육문제의 우선 지원과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 저소득 가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가정형 사회복지 시설로부터 지원받는 아동교육과 가정지원 사업이 보다 더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3.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와 함께 한 학부모 캠프

1)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와의 만남의 의의

지역아동센터란 빈곤지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학습지도, 상담, 문화활동, 위기지원, 의료지원 등 통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성남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약 40여개가 있을 뿐이며 그 중 성남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2007년 34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중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이하 성지연)에 소속되어 지역 아동들의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대한 공동사업과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은 18개 기관이며 18개 기관에서 보호, 교육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약 500명 정도이다.

함께 여는 교육 연구소는 이들 성지연 소속의 공부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의 학부모 참여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부모의 밤’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먼저 성지연 대표자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공동 협력 사업으로 ‘학부모의 밤’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책임있는 기관의 참여를 제안하였는데, 많은 기관들이 쉽게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아동의 보다 건강한 교육을 위한 가족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일차적 이유는 인력과 시간부족에 있겠지만 양육자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도 무시하지 못할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아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하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학부모 모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학부모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내용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갖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성지연’ 소속 기관 중 학부모 모임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는 몇 개의 기관이 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다. 성지연에서는 성지연 사무장 외 4기관(성남꿈나무학교, 즐거운 학교, 새롭지역아동센터, 1318 Happy Zone 모라아지트)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적은 기관이 참여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이후 성지연 소속 지역아동센터들이 공유하고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첫째, 교육복지의 영역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둘째, 학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의뢰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 스스로 교육 주체로 나서는 일과 셋째,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아동의 문제, 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의사소통 구조를 실천적으로 고민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2) 진행 과정

일정	사업추진내용	세부결정사항
4월	성지연 대표자회의에 학부모의 밤 사업 제안	
5월	4개 기관과 연대하여 학부모의 밤 시범 추진하기로 결정 1차 준비모임 구성	성남 꿈나무 학교, 새롬 지역아동센터, 성남 즐거운학교, 1318 해피존 모람아지트 학부모의 밤 사업의 의의와 프로그램 진행 방향 협의
6월	준비모임 진행	치유적 성격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나들이 형태를 취하기로 결정
7월	준비모임 진행	나들이 장소, 일정 등에 대한 결정
8월	준비모임 진행	프로그램 진행자의 공부방 방문, 사전 설문조사 진행, 홍보물 배포, 프로그램 내용 세부확정
9월	캠프 진행과 평가회	9월 8일 학부모 나들이 진행

3) 학부모 캠프 진행

❖ 제목 : 만남과 어울림이 있는 가을 나들이

❖ 일시 : 9월 8일 (토) 오전 9시 - 오전 11시

❖ 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 참여 인원

사전에 조사된 인원(학부모 39명)에 비해 당일의 기관별 참여 인원(학부모 29명)이 적었다.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체근무를 마련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택시업이나 일용직인 경우에는 과감히(?) 일을 쉬고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아동을 돌보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생계를 뒤로 하고 학부모 역할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책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진행
9시-12시	버스로 이동, 소개의 시간	각 기관별로 준비한 동영상 상영
12시-1시30분	식사와 자유시간	유기농 음식과 차, 자유 산책 컨셉이 있는 사진촬영, 선물준비를 위한 밥 따기, 비상용 호루라기 집 만들기
1시30분-2시30분	소개, 인사나누기	행사 진행팀 인사와 기관별 참여 학부모 자기 소개
2시 30분-4시	바느질하기	자신을 위한 인형만들기(천인형 핸드폰 고리)
4시-6시	춤 세라피	자존감 회복 및 습을 위한 치유
6시-8시	저녁 식사와 마무리	관계향상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음나누기
8시-11시	버스로 이동, 설문작업	평가설문,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공감

❖ 프로그램 평가

서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 갖게 되는 연대사업에 학부모들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저소득 가정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지역아동센터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던 학부모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편안한 자리가 되자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개방하며 아이들 키우는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만들기(호루라기 집 만들기) 시간에는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담으려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다 커버린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호루라기 집을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 자신을 위해 마련된 선물을 정성스럽게 바느질 하는 부모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자녀문제, 가족문제, 생활고로부터 소외해온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존중하며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는 손길은 그 어떤 교육보다 학부모들에게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

저소득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서 의미 있게 고려해볼만한 시사점을 남겼다.



마음을 치유하는 춤 세라피

쉽과 회복을 위한 춤세라피 이후 학부모들은 몸으로 만난 이웃이 더 이상 남이 될 수 없음을, 학부모와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라는 관계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가 되는 깊은 신뢰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해하게 되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은 어려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깊은 이해와 배려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서 교사와 학부모간의 새로운 교육적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 가정- 학교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처음 숙박교육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졌던 학부모들(주로 저학년 학부모들)조차 건강한 학부모로서 자신감을 갖고 아이들에 대한 보다 큰 이해와 관심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함을 다짐하며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아이들과 함께 먹을 '가을의 선물(밥)'을 가지고 내일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을 갖고 늦은 저녁 집으로 향했다.

❖ 성지연 게시판에 올라온 한 교사의 글

비가 내릴까 우려를 하며 창 모자는 준비 못하고, 멋내기 썬그라스는 준비했다.

다행히도 우리의 여행을 아시는지 푸른 하늘을 벗 삼아 여행이 시작되었다.

모르는 이름과 낯선 부모님들과 서먹한 분위기가 어떻게 풀릴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함께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니 그런 마음이 싹 가셨다.

어떤 여행이 될 지 학부모님들의 기대하는 눈빛을 보았다.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가 있었고, 아이들의 영상을 보며 “내 새끼다. 아이 예뻐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다.

원주 산처럼, 물처럼에 도착하자 복스런 밤송이에 아버지들의 본능적인 행동이 보였다. (밤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흔들기)

여러가지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기소개, 인형만들기, 춤세라피) 직접 재배하신 유기농 농산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과 자연이 어우러지니 어찌 음주가 술술 넘어가지 않으리오. 귀가 시간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의 얼굴은 나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나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내편도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한 표정들이면서 꽤 즐거우신 얼굴 표정들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후 연속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없고, 우리 공부방 학부모님께서 모두 함께하지 못했고, 연합회 모든 기관이 함께 하지 않아 아쉬웠다.

결론은 정말 짱 재미 있었다는거.

❖ 각 기관별 학부모들의 참가 소감

- 학부모 모임의 필요성과 아버지 모임 제안도 있었다. (모람 이지트 학부모)
- 예전에는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웠는데 이젠 아깝지 않다. (새롭 학부모)
- 기출하거나 잘못된 길로 아이들이 빠지기 쉽다. 학부모가 함께 나서서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모람이지트 학부모).
-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다 잊고 잘 된 것 같다. (즐거운 학교 학부모)
-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다. 오길 잘 했어요.

- 그동안 고생만 시키더니 애 덕분(지역아동센터를 다니게 되어)에 이런 좋은 경험도 한다.

4) 성지연 학부모 나들이에 대한 성지연의 평가와 후속 프로그램 구상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녀 이해기, 대화법,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 위기 아동을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

- 각 기관별 보고회 및 평가회를 갖고 각 기관별 학부모 모임 정례화

- 성지연 '학부모 분과' 를 구성제안. 지속적인 학부모 사업 연구 개발할 필요에 공감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밤' 사업 적극 제안, 아동 교육의 상호 협력 기관으로서 성지연의 역할 세우기 등)

- 저소득 학부모 이해와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사업 마련

4. 성남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학부모의 밤 사업 평가와 제언

1) 평가

-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시도였다.

- 강의식 형태의 교육 보다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한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부모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부모 가정, 아버지 모임, 위기 아동 지원 부모 모임 등)

-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체육대회, 여행, 캠프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가족 내적으로는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외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공동체적인 연대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부모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확보, 자녀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 학부모의 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학부모 캠프가 1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요구와 현실을 고

려한 후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 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의 밤이라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아동센터만이 아니라 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그들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한 부모 가정 자활 교육,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 등)

2) 제언

▶ 지역 아동센터의 부모 모임을 지역 차원의 가족지원 네트워크로

지역의 공부방에 자녀를 보내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간적 여유의 부족, 심리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나 양육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다.

저소득층 가족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행하고, 유사한 과제를 갖고 있는 가족들을 연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역 공부방의 학부모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역 공부방의 연대는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지원이 가능한 네트워크구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아동센터 학부모 연대를 통해 저소득층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 복지 문제의 중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에서 가족들 간의 협력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소득층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교육과 상담)

저소득층 가족의 위기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양

극화로 인해 저소득층 가족은 더욱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이 파괴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도시의 뒷골목을 방황하는 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 이혼이나 가족 기능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아이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 부모를 지원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은 부모의 삶의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 공부방이나 학교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실시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학교와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이 제시되어야

저소득층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교육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는 아이들의 문제 상황을 부모와 일상적인 상담을 해야 하나 부모의 장시간 노동, 맞벌이, 가출 등으로 직접 상담이 어려울 경우,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이번의 성남지역 학부모 캠프는 성지연을 통해 실험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이런 시도가 학교와 지역 및 관계기관의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많은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가족지원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와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교방문 프로그램 필요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이 대부분인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나 양육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을 만나고 자녀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편한 시간에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저녁시간에 학급모임이나

담임교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의 밤 사업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부모에게 절실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학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 사회복지사를 통해 학교와의 교육적 의사소통 구조를 가짐으로써 교육, 복지 전반에 걸친 소외로부터 저소득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사소통을 통해 위기의 아동과 가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 통합을 높이고 지역사회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이러한 저소득층 가족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현재 전국에는 약 9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 및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아동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지역아동센터들의 고민과 과제가 한층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는 학부모들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의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높이고 올바른 교육관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주체로서 학부모가 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관계기관의 인력,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학부모의 밤” 사업 평가와 향후 전망

이세용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1. 들어가는 말

〈함께여는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2년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인 “학부모의 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내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글은 연구팀에서 논의한 자체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보다 효과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형태의 제언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 기획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그 동안 진행된 내부 평가를 가능한 충실하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연구팀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주관적인 판단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학부모의 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일부 참조하였다.¹

“학부모의 밤”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팀은 매우 의욕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방향의 설정, 시범학교 선정 과정, 프로그램 세부 기획, 선정된 학교와의 소통 등 어느 하나 수월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밤” 행사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였고, 참여한 다수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생소한 이름의 사업이지만 학교-가정간은 물론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부모의 밤” 사업의 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향후 과제 등을 세부 주제별로 살펴본 뒤, “학부모의 밤”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부모의 밤” 사업에 대한 평가

(1) 학부모들의 높은 참여도

저녁시간(일부 주말 낮 시간)에 행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 2006년에 실시한 학교들을 포함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한 학교행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비록 어머니들의 참여도에 비하면 아직도 저조한 편이지만, 특히 아버지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았다. 저녁 시간의 모임을 통해 취업모나 아버지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다.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의 밤”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녁 시간에 개최하는 모임은 학부모들이 꺼려한다는 학교의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공했다. 다만 이렇듯도 학부모 참여도에 대한 과거 자료가 없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이 점이 “학부모의 밤”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부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낮 시간에 학교 참여가 어려운 취업모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학교 참여도가 높은 전업주부들의 편에서 학교행사를 낮 시간에 개최하는 일은 다른 많은 학부모들을 배제시키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낮 시간에 개최되는 학부모 행사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지, 저녁 시간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의 밤”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함께 학부모 참여도와 만족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참여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

전반적으로 “학부모의 밤”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을 위한 학교행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낮 시간 학교행사에는 참여가 어려웠던 학부모들이 학교의 배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최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연구팀의 세심한 기획 의도가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초대를 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이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교/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밤”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선택제 실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와 맞물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가능성 및 정형화된 기본틀 제시

“학부모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경우 “학부모의 밤”이라는 행사의 기본틀을 정해놓지 않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설명회,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 축제, 학부모 특강 등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반면 함께 여는교육연구소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학부모의 밤”이라는 행사에 가장 걸맞는 프로그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팀내의 논의 및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학부모의 밤” 행사의 기본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기획하였다.

저녁 시간에 진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과거 낮 시간에 개최하던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유형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녁 시간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학부모의 밤”이라는 동일한 행사이름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학부모

의 밤”이 무엇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소통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의 밤”이라는 행사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함께하는교육연구소 연구팀은 향후 “학부모의 밤” 사업의 정착을 염두에 두고 그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평가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대화/면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녁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급식체험에 대해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부모의 밤”이라는 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학부모의 밤” 행사의 모델 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사와의 대화/면담” 프로그램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행사 기획

이번 사업 결과를 통해 “학부모의 밤”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저연령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탁하기 어려운 저녁 시간 행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학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의 주제나 교사와의 대화 주제를 선정할 때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 포함된 농촌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늦은 밤 시간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저녁 모임의 시간을 앞당기거나 주말 낮 시간을 활용하는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이동거리가 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의 규모가 작고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들이 연합해 “학부모의 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학부모연대 사업).

이와 같이 각 학교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밤” 행사를 동일한 형태로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기획이 없이는 자칫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 오히려 “학부모의 밤”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5) 학교장의 리더십이 성공의 열쇠

사업 준비 과정 및 사업 결과에 있어 학교별로 뚜렷한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학부모의 밤” 사업에 대한 학교장의 태도가 사업 기획, 진행 과정 및 결과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 학교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이는 “학부모의 밤” 행사 실시가 학교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졌을 경우, 즉 “학부모의 밤”이라는 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확산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자율성이 높은 공립학교에서는 자발적인 행사 개최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학교선택제에 민감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밤”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 평가를 의식해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교사들의 낮은 참여도

“학부모의 밤” 사업을 진행하는 2년 동안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사전에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사들을 움직일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교사들의 낮은 참여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이 사업의 주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대개 교육부나 교육청 협력사업이며,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사범대학)이나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이다. 이에 반해 “학부모의 밤” 시범사업은 학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여성가족부와 민간연구소(및 학부모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학교 또는 교사의 고유 목표 달성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또한 교사 근무평정의 반영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둘째, 이 사업은 ‘학부모’를 위한 사업이었다. ‘학생 또는 교사’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학부모는 대개 학교 또는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교사가 학부모를 위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교사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은 “학부모의 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근무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에 학교에 남아 행사를 준비하거나,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했던 소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향후 “학부모의 밤” 시범사업이 기획된다면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부모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교사들의 고유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교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정 파트너십에 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7) 학부모 역량 강화는 어려운 과제

이 사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1차년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대표들을 참여시키려고 했다. 또한 1차년도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리더십이 형성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업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학부모의 밤” 행사 역시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기보다는 ‘학교의 행사’라는 인식이 강했을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의 이러한 목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공식적인 협의를 거친 목표가 아닌 ‘숨겨진 목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리더가 육성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외부 연구팀의 노력만으



용화여고 동료 학부모와 마음나누기

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학부모 리더십 교육 강좌라든가, ‘학부모가 만드는’ 학부모의 밤 사업과 같이 학부모 역량 강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회 활동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대규모 행사의 기획과 운영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 내에 학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하다. 학부모 관련 행사를 전담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²

(8) 저소득층 학부모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는 매우 낮다. 저학력, 학교교육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정보, 교사에 대한 의존심리(자녀교육을 교사에게 맡기고 싶어함),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사(전문가)를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 등으로 학교 참여를 꺼린다. 또한 저소득층의 많은 학부모들이 밤늦게 일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학교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도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들에게는 “학부모의 밤” 행사도 참석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과는 전화 통화도 쉽지 않다. 교사들의 학교 방문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한 마디로 저소득층 가정은 학교와 분리되어 있으며, 학교-가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밤” 사업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일정 정도의 교육과 보육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역시 학부모들과의 소통 및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번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의 밤” 사업은 기관 고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정-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의 밤” 사업은 지역사회-가정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교에서 배제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사회에서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부모의 밤” 행사(정기적인 학부모 모임)를 통해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사와의 면담 기법을 학습시킴으로써 가정-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복원)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학부모를 대신해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교사와 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³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지역아동센터에 의존하기 쉽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의 밤” 사업은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에서 그 의미가 돋보인다. 학교와는 분리된, 가정과 지역사회만의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다.

(9) 자원 동원의 문제

이번 사업의 성과는 행사를 치르는데 소요된 재원의 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에서 일

정 정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학부모의 밤”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의 밤” 행사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밤” 행사 매뉴얼,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안(우수 프로그램)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담당자(교사, 학부모) 교육,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Johns Hopkins 대학에서 운영하는 National Network of Partnership Schools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sos.jhu.edu/P2000/ 및 함께여는교육연구소에서 펴낸 2006년 학부모의 밤 사업 자료집 참조)

(10) 교사들의 반응

“학부모의 밤”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학부모의 밤” 사업의 확산과 정착을 고려한다면, 이 행사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사업이 참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교사들의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례적인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정말 교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만 “학부모의 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3. “학부모의 밤” 정착을 위한 제언

“학부모의 밤” 사업의 기본 취지는 모든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학교 행사를 저녁 시간에 개최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 3자의 자발적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부모의 밤”이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에 자리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 사실 학부모 대상의 학교 행사를 저녁 시간에 개최하는 “학부모의 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업 결과 드러난 학부모들의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행 초기 학교장과 교사 간 갈등, 교사들의 불만, 저항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신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밤”을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가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1) “학부모의 밤” 행사의 제도화

“학부모의 밤” 행사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학부모 모임을 저녁에 개최하자!’ 라는 주장만으로는 정착되기 힘들다. 매년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떠올리듯이 “학부모의 밤”이라는 명칭을 가진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때,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기 쉽다. 그리고 “학부모의 밤”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⁴

학부모들의 욕구를 고려한다면 연 2회 정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밤”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식적인 학교 예산에 배정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에 따라 학부모회 회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겠지만,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체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여야 한다. 또한 이 행사를 담당할 전담 부서(교사)가 지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밤” 행사에 대한 기본틀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운동회하면 누구나 그 행사의 내용(달리기, 줄다리기 등)을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듯이, “학부모의 밤”이라고 하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 프로그램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의 결과를 참고한다면 ‘학부모-교사 대화의 시간’이 “학부모의 밤”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프로그램은 개최 시기에 따라, 학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학기에는 학부모 총회를 겸한 “학부모의 밤”을, 2학기에는 학교 축제와 연계한 “학부모의 밤”을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초·중·고 각 1개교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아래 언급한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와 연계시킨 시범사업이 바람직하다.



학부모 아카데미와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된 자녀돌보기 서비스(동천초등학교)

(2) “학부모의 밤”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번 “학부모의 밤” 시범 사업에서 시도된 프로그램은 그 범위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연구팀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부모 행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 정리하지 못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각 학교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교사 대화의 시간’이 “학부모의 밤” 행사의 핵심이라면, 이 시간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 작업, 대화의 시간 운영 요령, 학부모 상담 기술 등에 관한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등이 유용할 수 있다. 사전에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 정리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대화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을 조사해서 미리 준비할 때 효과적인 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학부모에게 집중된 대화는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킨다. 집단 토론 기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내에 ‘학부모-교사 대화의 시간’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지켜야할 규칙, 상담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간단한 사전 교육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학교-가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

위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힘만으로 “학부모의 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담당 교사에게 커다란 부담일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역량 또한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한편 “학부모의 밤”은 학교-가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작은 노력에 불과하다.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학부모 참여 기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교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뉴욕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참고자료 첨부). 학부모 관련 행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부모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실질적인 학교-가정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 단위에서도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 학부모 참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로 뉴욕시 교육청에는 학부모 참여 담당실(Office of Parent Engagement)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방문, 전화 및 문서를 통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각 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13개 지역의 학부모지원사무소(Regional Parent Support Offices)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참고자료 첨부).

(4)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의 밤” 활성화 지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교육시키는 일은 지역아동센터의 고유 기능이 아니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을 따로 받거나,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실무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역할에 대해 실무자를 교육시킬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다. 학부모 상담 경험이 많은 교사, 현장 경험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책임자/실무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천 연구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와 가정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로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지역아동센터 간 연락체계(비상연락망)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체계 부터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학부모의 대리인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들 들면, 학부모 권리를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교사의 공지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등과 같은 문제가 분명해져야 한다. 자칫 위기상황에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학부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디까지 지역아동센터가 학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1.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는 “학부모 저녁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학부모 저녁모임: 일 끝낸 엄마·아빠, 자녀 학교에서 만나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편), 2006.
 2. 학부모 코디네이터에 관해서는 첨부자료 참조.
 3. 이러한 활동은 자칫 학부모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과연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대리 역할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4. 물론 “학부모의 밤”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행사이름은 바꿀 수 있다. 단 한 번 정해지면 반복 사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New York市 교육청의 학부모 지원 제도

(이세용, 2006.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및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에서 발췌, 『학부모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1. Parent Coordinator 제도

뉴욕시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은 학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 2002년 처음으로 1,200명의 〈Parent Coordinator〉라는 새로운 직원을 각 학교에 파견하였다. 이 제도는 학부모에게 학교가 언제나 열려있으며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리고, 나아가 학부모 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또는 학교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Parent Coordinator를 찾도록 하였다. PC는 학부모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Parent Coordinator는 New York시에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많은 직원들 가운데 일부이다. 학부모 지원 staff은 학교뿐만 아니라, 13개의 학습지원센터(Learning Support Centers)내에 있는 학부모 지원사무소(Parent Support Offices)와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무실에 일하고 있다. 그러나 PC는 다른 직원들과는 조금 다른 일정을 갖는다. 그들은 학교가 운영되는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시간대와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하며, 또한 직통선을 가지고 있어 학교 교무실을 통해 연결하기 위해 애쓰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학교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 Parent Coordinator는 학교에서 일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Parent volunteers)과 달리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arent Coordinator는 기존에 존재하는 학부모 조직들, PA(parent Association)나 SLT(School Leadership Team)을 지원한다. 일부 PC들은 과거 학부모회 임원 출신이지만, PC라는 자리가 학부모회가 연장된 것은 아니다. PC의 업무는 학부모 집단과 협력해 더 많은 학부모들을 학교에 참여시키고, 더 많은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PC는 지역사회 및 종교기관을 연계해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건강관리, 방과 후 활

동, mentoring과 같은 넓은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의 지원을 연계하려고 한다.

모든 학부모들은 Parent Coordinator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직통 전화번호를 받는다. 학년이 시작되면서 PC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C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제안을 받으려고 한다. Parent Coordinator는 여름동안 New York시 교육청에서 만든 부모학교(Parent Academy)에서 새로운 전문적 자격(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다.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New York시에서 P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PC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Parent Coordinator의 직무 - 직원 모집 공고를 중심으로

PC는 학교장의 감독 하에서 일하는 행정팀의 일부이다. PC는 교장, 교직원, 학교 리더십팀, 학부모 조직, 지역사회 조직 및 학부모 자문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학부모를 학교사회에 참여시키는 일을 한다.

이 자리(PC)는 학부모를 환영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PC는 학부모와 관련된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와 학부모의 문제를 파악하고 교장과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적시에 다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PC의 책무(Duties and Responsibilities)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를 높인다.
- 학교 정책이나 시설을 포함한 학부모와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 학부모를 자녀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조활동(outreach)을 수행한다.
-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에 관한 정기적인 학부모 회의와 행사를 개최한다.
- 교장과 함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다.
- 학부모 대표 선거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조직과 함께 일한다.

- 중앙 및 지역에 있는 학부모 지원인력과 학교간 연락사무를 수행한다.
-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밤 및 기타 행사를 조직하고, 학부모를 환영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든다.

PC의 최소 선발(자격) 기준

- 4년제 대학 졸업 및 책무와 관련된 2년간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및 책무와 관련된 4년간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 또는
- 고등학교 졸업 및 책무와 관련된 6년간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대

- 뉴욕시 공립학교 체계에 대한 지식
- 현재 또는 과거 공립학교 학부모
- 워크샵 개최 경험
- 이중 언어 구사자(비영어 인구가 많은 지역)
- 우수한 소통, 조직적,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기술
- 갈등 해결 및 중재 기술
- 교육 및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해 가정 및 학부모와 함께 일한 경험
- Microsoft Office Applications 사용능력(Word, Excel, PowerPoint)

- 이 자리는 학부모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과 관련해 유연성, 즉 이른 아침시간, 저녁시간 및 주말 근무를 요구한다. 또한 이 자리는 때때로(여름 방학기간에는) 다른 근무 장소에 배치될 수 있다.

- 공식적인 지위 명칭 : Community Associate
- 보수 수준 : \$28,567 - \$39,000

2.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조직

(1) Office of Parent Engagement

뉴욕시 교육청의 조직을 살펴보면, 산하에 Division of Teaching & Learning이 있고, 그 밑에 Office of Parent Engagement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방문, 전화 및 문서를 통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92명의 Parent Coordinators과 13개 지역 학부모지원사무소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개발을 돕는다.

(2) 지역 학부모지원사무소(Regional Parent Support Offices)

- 지역에 있는 학부모와 학부모 리더를 지원
- 학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학부모와 PC에게 정보를 배포
- PC에게 전문성 개발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
- 학부모 리더와 일반 학부모를 위한 워크샵과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 개발
- 지역의 학부모 운동을 지원

IV. 토론자 원고

학부모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모델 ‘학부모저녁모임’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1. 들어가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궁금한 게 많아진다.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친구관계는 어떠한지, 수업은 재미있는지, 선생님은 친절하신지, 학교 내 폭력사고는 없는지, 학교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알고 싶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나 교사의 수업 지침, 평가 기준, 교칙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학교행사 일정 등 다양한 궁금증이 있기 마련이다. 다행히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 얘기나 자신의 학교생활 얘기를 잘 전해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주로 아이 친구의 엄마-의 얘기를 통해 짐작할 따름이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통신문이 학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이의 학교생활을 알기에는 역부족이며, 학기 초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 역시 학교 측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상담을 하러 학교에 가고 싶어도 웬지 마음의 부담이 무거워서 어렵고 눈치 보인다.

한편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고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다. 아직도

학교는 왜 그렇게 권위적이고 보편적 틀이 없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반응하는지, 왜 준비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보살펴줄 부모가 없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고 가겠다는 것인지, 시험이란 그동안 배운 공부를 점검하고 복습할 기회인데 시험지를 돌려주지도 않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설명해주지도 않는지, 왜 교실에서 쓰는 비품인 냉장고를 학부모에게 사다달라고 하는 교사가 있는지 등 학교가 과연 교육의 현장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현재 학교에는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나 교사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할 공식적인 통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더더욱 없는 실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관심 있거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학부모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학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참여영역을 찾아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학교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참여하는 학부모도 자신의 활동이 학부모 교육권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 행사라는 의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고마운 자리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라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학부모의 교육권 행사로 이해하여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 교육권이란 구체적으로 자녀교육의 선택 및 결정권으로 학교선택권,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교육조건 정비 등에 대한 요구권,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이 자녀를 무조건 학교에 맡긴다는 이전의 개념에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같이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모든 학부모가 쉽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학부모저녁모임'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학부모 모임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제도화되어야 하는지를 학부모교육권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을 통해 알아보고, 2006년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 실시한 '학부모저녁모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학부모교육권이란

우선, 교육권이란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고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힘, 또는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교육법제의 기본적인 법리에서 교육의 당사자는 학생·부모·교사·설치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국가 등이다.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교사·설치자·국가의 교육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각 권리주체의 교육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관계부재나 대립관계를 거쳐 오늘날 공교육체제에서는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는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강인수 '학부모 교육권의 이론과 현실' '학부모교육권 확대 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5. 12. 07)

부모 또는 친권자가 어린이를 양육, 보호, 감독,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자연권으로서의 부모의 교육권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1차적 의무를 이행할 권리이다. 부모의 교육권은 혈연의 자연적 관계로서 자연법 상의 양육·교육할 의무와 실정법상으로 감호·교육할 의무 및 교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은 자녀교육의 선택 및 결정권으로 학교선택권,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교육조건 정비 등에 대한 요구권,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 등이라 할 수 있다. (강인수 '학부모 교육권의 이론과 현실' '학부모교육권 확대 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5. 12. 07)

부모·보호자의 자녀·아동 교육권 및 학교교육 참여권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인수 '학부모 교육권의 이론과 현실' '학부모교육권 확대 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5. 12. 07)

- 취학의무 (헌법 제31조 ②,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자녀·아동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 (교육기본법 제13조 ①)
- 자녀·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교육기본법 제13조 ②)
-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심의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헌법은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족은 자유 민주적 문화국가에서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이란 과제를 이행할 수 있고, 문화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 37조 제1항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강인수 ‘학부모 교육권의 이론과 현실’ ‘학부모교육권 확대 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5. 12.07)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한편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자녀 교육권의 본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 즉,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정신적, 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의 이러한 일차적인 결정권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헌법 재판소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강인수 ‘학부모 교육권의 이론과 현실’ ‘학부모교육권 확대 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5. 12.07)

3.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가 주관한 학부모저녁모임 사례

2006년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5개 학교에서 학부모저녁모임을 시범 실시하였다. 그 내용이나 운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결과 학교/담임과 학부모 간의 면담, 학부모를 위한 특강, 자녀의 방과후학교 활동 종합발표회, 학교의 특별프로그램 설명회,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저녁축제, 그리고 이들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 학교 구성원의 요구나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저녁모임이 실시되었다.

1)삼량 중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도 소재)

실시일자 : 2006년 6월 12일 오후 7시

학부모저녁모임의 내용 : 1.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설명회

2. 학부모특강

3. 학교장/교감/교사와의 자유면담

학부모저녁모임의 특징 : 지역 특성상 학교가 집과 떨어져 있어서 학부모들이 조를 짜서 학생들의 등, 하교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부모저녁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아빠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교 재정 등 학교의 미래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학부모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역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실시일자 : 2006년 9월 26일 오후 7시-10시

학부모저녁모임의 내용 : 1. 학부모특강 (꽃맞닥침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방안)

2. 담임 면담

학부모저녁모임의 특징 : 역삼초등학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저녁모임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했고,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학부모저녁모임의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설문조사의 효과는 학부모의 욕구를 알아보는 것 이외에도 사전에 학부모의 관심

을 유도해서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7-8명 정도가 부부동반으로 참석, 저녁시간대라면 아빠들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한가람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양평구 목동 소재)

실시일자 : 2006년 10월 20일 오후 7시-10시

학부모저녁모임의 내용 :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한 저녁축제

1. 방송부제작 학교홍보 영상
2. 공연
3.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게임 및 장기자랑, 춤
4. 경품추첨
5. 불꽃놀이(운동장)

학부모저녁모임의 특징 : 한가람고등학교는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매년 실시하는 학교축제인 '한가람제'의 프로그램 속에 Parents' night을 준비, 낮에 학생들끼리 공연한 내용을 저녁에 자녀와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식 때나 한번 와 볼 수 있던 학교에서 아이들의 공연을 보고 참여하니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재주와 끼가 놀랍고 즐겁다"는 학부모의 소감처럼 학교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창구역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임.

4)면동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소재)

실시일자 : 2006년 11월 10일 오후 4시-6시

학부모저녁모임의 내용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합발표회

2. 학부모특강(자녀이해와 진로지도)
3. 보육프로그램 운영(학부모특강 진행 시 동반자녀 프로그램)

학부모저녁모임의 특징 : 면동초등학교는 보육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자녀의 활동내용을 보는 기회가 적은 만큼 학부모저녁모임을 통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참여한 '작은 가족음악회'를 연출하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학부모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반자녀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되어 특강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간단한 저녁식사(김밥과 샌드위치) 제공과 동반자녀 보육프로그램은 학부모 참석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 청산중학교 외 인근 4개 학교 연합 (경기도 연천군 소재)

실시일자 : 2006년 11월 22일 오후 7시-9시

학부모저녁모임의 내용 : 1. 학부모 특강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엄마가 변해야 한다)

2. 질의응답

학부모저녁모임의 특징 : 청산중학교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학생수 110명 교사 10명)로 지역 특성상 단위학교의 학부모저녁모임보다 지역 학부모저녁모임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역의 전체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 참여범위를 인근지역의 4개 학교로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청산중학교는 앞으로 자녀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학부모를 위한 컴퓨터교육동아리, 탁구교실동아리, 뜨개질동아리, 도서관봉사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학부모를 우선 학교에 끌어들이어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게 한 후, 자녀의 학업과 교육에 열의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는 열악한 환경의 의욕 낮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학부모에게도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센터 역할을 수행.

4. 나오며 - 다양한 학부모 학교 참여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학부모가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학교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부모 교육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정보공개, 수업공개, 정기적인 상담실시, 학교 교육 및 운영 전반에 학부모의 의견수렴 창구 확대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늘어나면서 이전의 낮 시간 중심의 학부모모임을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등으로 옮기거나 학부모와의 사전예약 상담제를 실시하는 등 유연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간대 뿐 아니라, 참여 프로그램 역시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여 대상자도 아버지, 조부모 등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지역, 저학력이나 한 부모가정, 맞벌이 가정은 다양한 교육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자녀교육 문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데 '성지연' 사례에서 찾은 것처럼 앞으로 아동 및 학부모 교육과 복지를 돌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부모정책이 국가의 포괄적 책임과 의무 하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개

▶▶▶ 걸어온 길

- 2004년 8월, 이우교육연구소 설립
대안교육아카데미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연구 및 우수학교 평가, 교사 세미나 진행
- 2006년 1월, 사단법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설립 인가(경기도 교육청)
이경재 이사장, 이광호 소장 취임
- 2006년 5월, 소식지 「함께여는교육」창간
- 2006년 10월,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 국제심포지엄 및 한마당' 공동 주관
- 2007년 4월, 제 2회 회원의 날 행사
- 2007년 8월, '2007 우수학교 정기 평가' 보고회
- 2007년 10월, 함께여는교육 뉴스레터 창간

▶▶▶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사람들

- 고문 : 이명현(전 교육부 장관)
- 이사장 : 이경재(전 이우교육공동체 대표)
- 이사 : 조한혜정(연세대 교수), 한동현(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장석(학교법인 이우학원 이사장), 정광필(이우학교 교장),
이건행(변호사), 이광호(연구소장)
- 감사 : 민재기(회계사), 김혜장(여성학자)
- 자문위원 : 이종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수일(전 전교조 위원장), 양희규(금산간디학교 교장), 이수광(이우학교 교감)
- 연구지원국 : 나선미(국장), 방민창(웹마스터), 황순예
- 연구국 : 우경윤(연구 1국장), 유봉인(연구 2국장)

▶▶▶ 2006~2007년 주요 사업

- 대안학교 교육과정 관련 연구과제 공모 사업(연구비 5000만원 지원)
- '배움의 공동체' 를 통한 학교 혁신 운동 전개
 - 이우학교 연구부와 협력, 수업연구회 및 사또 마나부 초청 강연
 - 일본 교사 연수 기획, 운영(2회)
- 대안교육아카데미 진행(일반과정 5기, 학부모과정 4~5기, 교육직무연수 3~4기)
-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학부모의 밤' 사업 진행(동천초, 백암중, 용화여고 등)
- 교육부 주최 '대안교육한마당 및 국제심포지엄' 공동 주관
-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학교용 웹 솔루션 개발(2007년 이우학교 적용)
-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사업추진운영위원회, 교육연수기획 참여
- 장학 사업 및 대안학교 지원 사업
-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 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방안 연구(태백시민연대, 2006년)
 - 인권친화적 학교 모델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연구, 2006년)
 -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모델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2007년)